

4일 Market Index			
↓ 코스피	5093.54	↓ 코스닥	978.44
	(-698.37)		(-159.26)
↑ 금리 (연이자율)	3.223	↑ 환율 (원/달러)	1473.25
	(+0.043)		(+7.15)

#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3월 5일 목요일

## 증시 이틀째 패닉 셀링... 5천피도 위태

## 적자끊고 연내 반등 삼성전자 파운드리 영업익 2000억 예고

### 이란發 한국 증시 직격탄

코스피 12% 폭락 5093.54 마감 역대 7번째 '서킷 브레이커' 발동 삼성 11.74% 하락 17만2200원 SK 9.58%, 현대차 15.80% 내려 하루만에 국내증시 135조 증발

40대 직장인 하모씨는 "3월이 시작하자마자 '검은 화요일(3일)'에 이어 '검은 수요일(4일)'까지 투자금 수천만원 이이를 새 날아갔다"며 "한반도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허무하게 손실을 보니 역시 국장(한국 주식시장)에는 투자하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든다. 도박장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후폭풍이 글로벌 주식시장을 강타했다. 코스피는 5090선대에서 턱걸이 했고, 원·달러 환율은 10.1원 치솟으며 1500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추락했다. '검은 화요일'을 뛰어넘는 '검은 수요일'이다.

#### 〈관련기사 2·3·4면〉

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06% 하락한 5093.54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2.64% 하락했다. 하루치 하락률로는 2001년 9월 12일(-12.02%) 이후 최대 하락률이며, 지수 낙폭(698.37포인트)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전광판에 코스피와 주요 종목 증가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그야말로 국내 증시는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장 초반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낙폭이 커지자 양쪽 시장에 모두 서킷 브레이커(1단계)가 발동됐다. 코스피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는 1998년 도입 이후 7번째, 코스닥은 2001년 10월 이후 역대 11번째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80.43(27.71%)까지 치솟았다. 코스닥 지수는 978.44(-14%)까지 떨어졌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무려 11.74% 하락하며 17만2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만에 국내 증시에서 135조원이 증발한 셈이다. SK하이닉스

는 9.58% 급락했다. 현대차는 15.80% 급락한 50만1000원, 방산 대장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61% 하락한 132만30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시가 총액은 약 440조원, 코스닥 시가총액은 약 87조원이 날아갔다.

이날 기관은 5888억원 가량을 팔아치웠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312억원, 797억원을 사들였지만, 지수를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초토화'됐다. 일본 닛케이225와 대만의 가권(자취안)지수는 각각 3.61%, 4.35%씩 하락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홍콩 항셱지수도 중동발 여진에 무너져 내렸다.

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미국의 공습으로 폭사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소식에 투자심리각 냉각됐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결사항전을 택했다고 본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 부사령관 모하마드 아크바르자데도 "반복적인 경고를 무시한 10척 이상의 유조선이 각종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에 탔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유가 급등에 원화는 약세... 한은, 금리 딜레마

### 중동 확산... 유가 80달러대 굳혀 연준 금리인하 기대 9월로 밀려 유가 더 상승시 韓 물가·금리 압박

중동 전쟁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80달러대를 굳히자 글로벌 시장이 인플레이 재점화와 연준 인하 지연' 시나리오를 재가동하고 있다. 유가발 비용 인플레이가 달러 강제와 원화 약세로 이어질 경우 수입물가와 국내 금리 경로가 동시에 압박을 받으면서, 한국은행의 정책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배럴당 82.57달러(1.4%)로 올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75.28달러로 상승했다.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역내 에너지 인프라 타격, 선박 공격이 겹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이 커지고 전쟁위험 보험 취소가 확산되는 등 물류·보험 비용 충격이 현실화했다.

유가 급등은 에너지 가격 자체를 넘

어 물가와 금리 기대를 흔든다. 운송비와 정유·화학 원가를 통해 수입물가를 밀어 올리고, 기대인플레이를 자극하면 서비스 물가로 2차 파급이 변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충격은 '공급 충격' 성격이 강해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채권시장은 인플레이 경계로 반응했다. 미 국제 2년물 금리는 3.498%로 올라(채권값 하락) 장중 3.599%까지 치솟는 등 단기금리 변동성도 확대됐다. 이에 로이터는 유가·가스 급등이 인플레이 우려를 키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7월에서 9월로 밀렸다고 전했다.

미국 실물지표에서도 '비용 인플레이' 신호가 확인됐다.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월 52.4로 확장 국면을 유지했지만, '가격지수(Prices Paid)'는 70.5로 전월(59.0) 대비 11.5포

인트(p) 급등해 2022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체의 투입비용(원자재·부품) 물가 압력이 빠르게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주식시장은 지난 3일 7.24% 급락 이후 4일에도 큰 폭의 조정을 이어갔다. 중동 전쟁 여파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환율은 지난 3일 주간거래 증가(1466.1원) 이후 야간거래에서 한때 1505.8원까지 치솟았다가 이날 전 거래일(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보다 10.1원 오른 1476.2원으로 장을 마쳤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를 때 한국은행의 딜레마는 커진다. 유가 상승은 성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원화 약세는 수입물가를 통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린다. 경기가 흔들리면 원화가 필요해도 물가·환율 불안이 커지면 인하의 속도와 폭을 키우기 어렵다는 구조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춰져 달러 강세가 길어질 경우 원화 변동성은 더 커

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관건은 유가가 80달러대에서 더 뛰어 기대인플레이를 자극할 지,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추가로 뒤로 밀릴 지다. 에너지 가격이 '일시 충격'에 그치지 않고 비용·기대인플레이를 흔드는 국면으로 넘어가면, 달러 강제·원화 약세가 맞물려 한국의 물가·금리 경로를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일시적으로 넘기도 했지만 현재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고 우리나라의 대외채입 자산금리 및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원화 환율 및 금리가 경색수지 등 국내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변동하는 지 면밀히 살펴보고, 시장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필요 시 정부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지선 앞 '90년대생 청년' 인재 5명 영입... "미래세대 중심 정책 혁신" /사진 뉴시스  
▲조국, '돈 준 적 없다' 김성태 녹취에 "李 공소취소돼야"

▲與 국조추진위 "쌍방을 대복송금 조작기소...李 공소 즉시 취소해야"  
▲송영길 "계양에 또 빛졌다...이재명 정부에 보탬 위해 역할"

▲박수현 "역겹다...헌법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 사라지나" 조희대 사퇴 촉구  
▲한병도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 규명은 국회의무"...국정조사 예고

중동 에너지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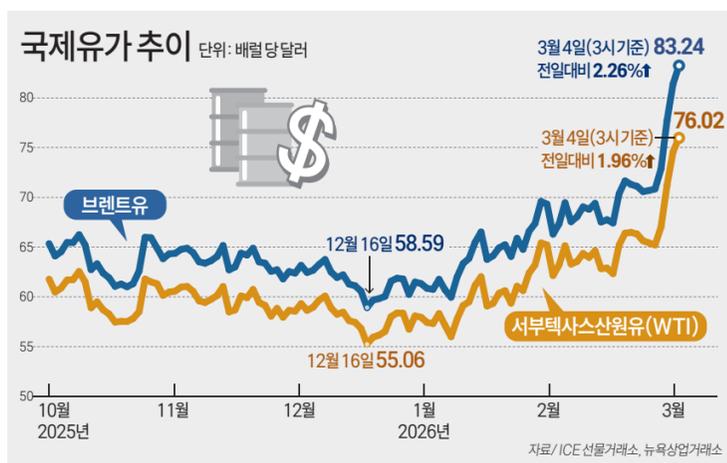
# 하루만에 휘발유 값 42.6원 올라... 28개월만에 최고 수준

국제유가 상승분 즉각 반영  
전국 주유소 차량 대기 행렬  
일각선 석유판동 우려 시각도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4일 휘발유 값은 최근 2년4개월 사이 가장 비싼 수준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경우, 2~3주의 시차를 두고 원유 가격 변동을 따라가지만 이번엔 상승 폭이 즉시 반영되는 모습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전일대비 리터(ℓ)당 42.66원(2.48%) 오른 1765.70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10월23일 기록한 1766.04원 이래 28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통상적으로 일일 가격 변동폭은 전 거래일과 비교해 0~0.3% 범위에서 오르거나 내린다. 그러나 이번 상황하에 선 달랐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단행된 지 이틀 만인 이

달 2일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0.42%로 확대된 뒤 3일 1.69%, 이날 4일에는 2.48%까지 뛰었다.

전국 각 주유소에는 조금이라도싼 값에 연료를 채우려는 차량 행렬이 북

물이고, 이같이 몰려드는 수요에 사업자들이 앞다퉈 소비자 가격 인상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경유 가격은 더 크게(4.41%) 상승하며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다. 오후 3시 기준 1706.66원까지 뛰었다.

국제유가는 80달러 선을 호가하고 있다. 이날 3시(한국시간) 기준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26% 뚝 배럴당 83.24달러에 거래됐다. 중동산두바이유는 배럴당 80.39달러,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6.02달러로 각각 전일대비 5.04%, 1.96% 올랐다.

이에 이른바 석유판동을 우려하는 관측도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주요 국제투자은행(IB)들은 페르시아만·호르무즈해협의 불안정한

상황이 고조됨을 들어,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지상전으로의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의 해군·공군력 무력화만으로 종전에 이르는 것은 어렵다고 예측한다.

또 이란의 까다로운 지형을 들어, 미국·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할 시 견줄 수 없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다. 게다가 육군의 경우, 이란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반면 이란 공습 이전부터 원유 공급은 충분했음뿐더러, 미국 내 원유 생산이 늘면서 세계 경제의 중동산 의존도가 줄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한국석유공사, 전략비축유 방출 등 비상조치 검토

중동정세 변화 선제적 대응  
해외 생산분 도입 등 논의

한국석유공사가 중동 정세 급변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략비축유 방출 등 비상조치 점검에 나섰다.

석유공사는 지난 3일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 주제로 '석유수급 위기대응 상황반'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중동발 고유가 리스크 확대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열렸다. 석유공사는 정부의 석유수급 위기대응체계에 맞춰 자체 상황반을 가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비축유 방출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해외 생산분 도입 등 단계별 석유수급 안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전략비축유는 정부가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석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민간에 방출하기 위해 저장하는 재고로, 석유공사가 전국 9개 비축기지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비축량과 민간 비축량을 합해 국제에너지기구(IEA) 권고 기준인 90일분을 웃도는 수 개월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과거 ▲1991년 걸프전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년 리비아 사태 ▲2022년 글로벌 고유가 대응 공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IEA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정부 비축

유를 방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동 사태로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유동단계별 일일 유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오피넷과 알뜰주유소사업 등을 통한 국내 유가안정 방안도 논의했다.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에너지 안보를 담당하는 공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며 "국영석유사로서 정부 지침에 따른 비상조치 방안



4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유소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을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경영진부터 일선의 직원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



## 반도체 등 제조업 주춤... 산업생산 줄고 소비·투자 증가

금액 기준 수출통관 크게 증가

반도체 등 제조업이 주춤하면서 산업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소비와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1.3% 줄었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2.2%) 이후 11월(0.7%)과 12월(1.0%)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지난 1월 감소했다.

제조업(-2.1%)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1.9% 감소했다. 반도체(-4.4%)와 기타운송장비(-17.8%)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산업활동동향은 물량 기준으로 생산을 집계하는데, 최근 D램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77.0% 상승하는 등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금액 기준 수출통관은 크게 증가했지만 물량지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 대비 1.6% 감소했다. 수출 출하(-1.7%)와 내수 출하(-1.3%)가 모두 줄었다.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97.8%로 전월 대비 1.



7%포인트(p) 상승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2%로 전월 대비 1.4%p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보통신(8.0%), 금융·보험(1.1%) 등은 생산이 증가했지만 도소매(-1.4%), 전문·과학·기술(-3.0%), 운수·창고(-2.8%) 등에서는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2.3% 증가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6.0%), 통신키타

컴퓨터 등 내구재(2.3%)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0.9%) 판매가 모두 늘었다.

업태별로 백화점(6.3%), 대형마트(0.9%), 면세점(10.0%), 승용차·연료소매점(0.2%) 등에서 판매가 늘었고, 슈퍼마켓·잡화점(-1.8%), 편의점(-0.1%), 전문소매점(-1.2%), 무점포소매(-0.6%) 등에서는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6.8% 증가하며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15.1%)와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4.0%)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은 11.3% 감소했다. 지난 2012년 1월(-13.6%)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토목(0.0%)은 전월 대비 보험세를 나타냈지만 건축(-15.0%)에서 공사실적이 크게 줄었다.

동행지표는 보험, 선행지표는 상승흐름을 나타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보험을 기록했다. 다만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7p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 국내 기관, 1년 새 해외증권투자 20% ↑

美 금리인하 등 영향... 5000억弗 돌파

지난해 말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이 5000억달러를 돌파해 1년 새 20% 넘게 증가했다.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과 AI 기대 속에 글로벌 주가가 상승하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미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주식·채권 평가이익과 순투자 증가가 겹친 영향이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2025년 말 우리나라 주요 기관투자자(자산운용사·외국환은행·보험사·증권사)의 외화증권투자잔액(시가기준)은 5078억3000만달러로 전년 말 대비 872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가율은 20.7%다.

한은은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AI 산업 발전 기대 지속으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지속으로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외국 주식과 채권 모두 평가이익이 발생한 데다 순투자도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투자주체별로는 자산운용사 잔액이

3582억4000만달러로 681억달러 증가해 전체 증가를 주도했다. 보험사는 750억달러로 94억3000만달러 늘었고, 외국환은행은 520억2000만달러(+59억1000만달러), 증권사는 225억7000만달러(+38억달러)를 기록했다.

상품별로는 외국주식 잔액이 2925억3000만달러로 660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한은은 주요국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에 더해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순투자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채권 잔액은 1828억9000만달러로 189억8000만달러 늘었는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등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10년물 4.57%→4.17%)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보험사를 중심으로 순투자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증권인 코리아 페이퍼(Korean Paper) 잔액도 324억1000만달러로 22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한은은 외국환은행을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



# 外人 19조 ‘탈한국’… 중동 쇼크에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

## 증시 이틀째 ‘패닉 셀링’

4일 코스피가 12.06% 하락했다. 2001년 9·11 테러(12.02%)를 넘어선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전날 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0.8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이 0.94%, 나스닥이 1.02% 하락한 것과 비교할 때 예상을 벗어난 결과였다. 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패닉 셀’로 이어졌다.

주가 전망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증시 조정의 주원인이었던 중동 전쟁의 영향이 유가로 제한된 만큼 주가가 곧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낙관론이 있는가 하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 확산 여부를 좀 더 관망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리스크 관리’를 외친다.

### ◆글로벌 시장도 K증시도 ‘셀 반도체’

최근 증시 하락은 외국인도 주도했다. 이날 투자자는 이날 2312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최근 10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19조3000억원어치 자금을 뺐다. 대신 개인 자금이 10조6000억원어치 시장으로 들어왔다.

### 삼전·하이닉스 차익실현 박자 뉴욕보다 큰 하락, 심리 급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4.58% ↓ 外人 ‘셀 코리아’ 반도체 직격탄

이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1위는 삼성전자다. 약 17조 원 어치 자금을 털었다. 2위는 SK하이닉스(4조4000억원), 3위는 삼성전자우(9300억원) 4위는 KB금융(3000억원), 5위는 S-Oil(2800억원)이었다.

중동발 전문이 확대되면서 수출과 주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반도체주에 확산한 것이다. 인공지능(AI), 피지컬 AI 등의 수혜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던 것도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선 이유다. KB금융은 정부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영향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배경과 관련해 “올해 들어 삼성전자가 80.6%, SK하이닉스가 63.0% 각각 상승하면서 차익실현 유인이 확대되고, 포트폴리오 목표 비중 유지를 위한



재조정 움직임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인공지능(AI) 업황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완화 기대가 후퇴했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외국인 유지를 해야 하는 한국 비중이 초과됐고, 비중 초과분을 매각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뉴욕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4.58% 급락했다. 다른 지수 대비 낙폭이 컸다. 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는 180.16 달러로 1.27% 하락했고, AMD는 190.80 달러로 3.94% 큰 폭으로 떨어져 거래를 마쳤다. 메모리칩 기업 마이크론은 무려 8.02% 하락, 샌디스크는 8.91% 하락했다. 중동 불안이 반영된 것이다. 아시아 반도체 시장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 미국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기업들도 실적 전망을 재산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증권가에선 이번 사태가 기업 이익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가 다시 유입돼 코스피가 반등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전쟁은 금융시장에 일시 충격을 줬지만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장기적으로 훼손시키진 못했다”고 말했다.

한지영·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중동 지정학적 불안은 현재 진행형이므로 그 여진이 이번 주 남은 기간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 낼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반도체 포함 주도주들의 견조한 이익 펀더멘털과 정부의 증시 지원 정책, 조정 시 매수 수요 등을 감안하면

지수 추세 하락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투매에 동참하는 성격의 비중 축소 전략보다는 기존 포지션 유지 혹은 낙폭 과대 주도주 매수 전략의 실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허약한韓경제, ‘오일쇼크’까지 덩쳐

세계경제가 중동 쇼크를 받는다면 이제 막 바다를 벗어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보다 0.2%포인트 올린 2.0%로 조정했다. 하지만, 실물경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에 의존해 오른 증시는 금리 상승국면에서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24년 12월 이후 최저치이고, 실업률도 두 달 연속 4%로 나타나는 등 실물경기와 증시의 온도 차도 커지고 있다. AI 투자 사이클이 둔화할 가능성도 변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 투자 불황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지난해 전망 때보다 악화한다.

주가 상승은 한국경제와 이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에 치명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당시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봉쇄해 유가가 1년간 배럴당 100달러로 오르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국의 무역수지가 408억 달러 줄고 물가 상승률은 1.3%포인트(p)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석유

공급이 5% 감소하면 실질 GDP는 0.6%p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도 불안 요인이다. 미국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원들과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당분간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이들 중 일부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유조선 피격 발언에 공포 확산 유가 급등 땀 물가·성장률 압박 환율 급등 땀 수입물가 자극 전문가 “투매 대신 리스크 관리”

고환율 공포도 고개를 들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깊어지고 4일 한때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지지선인 1500원을 돌파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70원에 오전장(오후 3시 30분)을 마감했다.

한국은 식량과 석유, 그리고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한다.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가 비싸진다. 빵값도, 집값도, 공공요금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소득이 늘지 않는 이들은 저절로 가난해진다. 내수는 침체에 빠지고 경제는 활기를 잃는다.

### ◆글로벌 증시 어떻게 되나?

앞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마다 나뉜다. 리쿠드넷의 제프리 코너 미국 주식시장 구조 총괄은 “장기 전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몇 주 동안 시장을 짓누를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이같은 지정학적 충격을 간과할 수 있었으나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RBC캐피털마켓은 과거 지정학적 충돌 이후 증시가 반등했다는 통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전면전으로 확산될 경우 하방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인 봉쇄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건스탠리 산하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은 “현재로서는 답보다 질문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에너지 시장이 안정된다면 긍정적인 과급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경우 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롭바드오디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새미 차르는 로이터에 “분쟁 장기화로 오일 쇼크가 발생한다면 원자재, 채권 금리, 통화, 석유에 민감한 주식 섹터, 인플레이션 전망, 통화정책 경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의 경우엔 경제 성장까지 다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후주 투자 분석 업체 카퍼리포트의 분석을 보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일본의 미국 진주만 공습 당시에는 다우평균 하락세가 6개월 넘게 장기화했다가 1년 뒤에야 반등했다. 1973년 중동 오일쇼크 때에도 저점 3·6개월 후에는 상승했지만 1년 뒤에는 오히려 저점 대비 25%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충격이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 때나 올해 1월 베네수엘라 공습 때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영화 ‘빅쇼트(The Big Short)’로 유명한 미국의 투자자 스티브 아이스먼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투자자들이 ‘무시’해도 되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이스먼은 이같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장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덤 헤츠 제너스헨더슨 글로벌자산 책임자는 “석유시장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장기화되지 않는 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은 기본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며 지정학적 충돌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 공매도 하루 5180억 급증… 이란 사태에 ‘하락 베팅’ 몰렸다

## 공매도 2조4570억, 지난달 평균 2배 대차 145조 돌파… 선행지표도 급등 “호르무즈 봉쇄 땀 변동성 확대”

이란 사태 이후 공매도 거래대금이 하루 사이 5000억원 넘게 급증했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방법이다. 공매도 투자는 주가가 내려야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하락을 예

상하는 투자자가 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조4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1조9390억원 대비 518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3000억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거래량도 지난달 27일 2616만4401주

에서 하루 사이 3427만6617주로 811만 2216주 늘었다.

공매도의 ‘선행 지표’격인 대차거래액도 급증세다. 대차거래는 기관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로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증가하기 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날 기준 대차거래액은 145조3872억원에 이른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 비

율이 높은 코스피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한온시스템, LG디스플레이, 한화생명, 대우건설, 미래에셋증권, 삼성중공업, 한미반도체 등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증시 과열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 잔고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불확실성에 앞으로 코스피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전쟁 자체보다 상황이 얼마나 빨리 종료되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의 봉괴 상황, 중동내 참전 세력 및 전선 지대 확장, IRGC(이슬람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실질적 봉쇄 등은 4일 차에 접어든 전쟁이 진정보다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 호르무즈 마비에 LNG 변수... K-조선, 단기적 영향 제한적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 통과 LNG운반선 용선료 하루새 40% ↑ 장기화면 수주흐름에 영향 가능성 일각서 해양플랜트 긍정적 분석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커졌지만 국내 조선업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체 조달 과정에서 운송거리(톤마일)가 늘어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반면, 카타르 LNG 프로젝트 차질로 발주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돼 LNG선 수주 흐름은 여전히 예측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4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되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하면서 중동 해상 운송 시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와 대량의 LNG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 중인 대형 컨테이너선과 선박의 모습. /뉴시스

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선주는 안전 위험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는 등 선박 운항이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분위기다. 이 여파로 LNG 운반선 용선료도 지난 2일 하루에만 40% 이상 급등했다. 이란의 공격은 카타르 북부 라스라판 LNG 생산시설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인 카타르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LNG 운송 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해운 시장의 혼란이 국내 조선업계에 곧바로 유의미한 영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전쟁 양상은 과거처럼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고, LNG 프

젝트는 대규모 장기 사업으로 단기간에 중단되거나 새로 추진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LNG 조달 경로 변화가 수주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동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 미국과 호주 등 다른 지역에서 LNG 생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달 지역이 중동에서 원거리로 이동하면 운송거리(톤마일)가 늘어나고, 같은 물량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선박도 증가해 LNG 운반선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조선사의 LNG선 수주가 증가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카타르 LNG 프로젝트 자체가 지연될 경우 예정된 발주가 보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급망 재편 여부와 정책 대응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LNG선 발주 확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원유 운반선 발주 전망도 엇갈린다.

해상 운임 상승으로 해운사 수익성이 개선될 경우 발주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탄소중립 정책 강화로 장기적인 석유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신규 발주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해양플랜트 시장에는 현 상황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가 상승으로 해양 유전 개발의 경제성이 개선될 경우 그동안 미뤄졌던 해양플랜트 프로젝트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75달러 이상을 유지할 경우 해양 개발 재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현규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부분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건으로 곧바로 신규 사업이 시작되거나 중단되지는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metro

## 국내 대기업, 중동서 140개 법인 운영... 삼성 28곳으로 최다

92개사, 중동 10개국에 법인 세워 아랍에미리트 56개, 사우디 38개 삼성전자 “임직원 안전 확보 최우선”

중동 지역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 집단의 법인이 1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이 28개를 운영하며 가장 많은 현지 법인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들은 현지 상황이 긴박해짐에 따라 현지 임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을 펴고 있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4일 내놓은 ‘92개 국내 대기업 집단의 중동 국가 해외법인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기업집단들은 중동 10개국에 총 140개 법인을 두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해외법인 6263개 중 2.2% 규모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랍에미리트에 56개로 가장 많았다. 삼성이 10개로 최다였고, LG(7개)와 현대차(6개)도 5개 이상의 법인이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38개 법인을 해외계열사로 뒤 중동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았다. 삼성이 6개 법인을 배치했다. 오만(12개)과 이집트(11개)에 해외 법인이 있었다. 이어 이스라엘(8개), 요르단-이란(각 4개), 키프로스(3개), 바레인-쿠웨이트(각 2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미국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이란에는 SK·현대차·중흥건설·KT&G 그룹도 각각 1개씩 총 4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이란 소재 법인 중 2개는 건설업 관련 회사이고, 무역과 담배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있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28개로 가장 많이 전진 배치했다. 아랍에미리트에 10개 법인을 운영 중이고, 이어 사우디아라비아(6개)와 이스라엘(5개) 순으로 법인을 많이 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지 임직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일부 인력은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사업에서 중동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란과 이스라엘에 근무 중이던 직원들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이집트, 요르단 등 인근 국가로 대피시켰다. UAE, 카타르, 이라크 지역 직원들은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요

르단의 경우 정상 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LG·GS 3개 그룹은 각각 14개의 해외법인을 중동에 뒀다. 2023년과 비교하면 LG와 GS 그룹은 1~2개 정도 늘었으나, 현대차 그룹은 6개 더 많았다.

LG는 아랍에미리트에만 7개 법인을 세웠고, 사우디아라비아(3개)와 이집트(2개)에도 각각 2개의 해외법인을 뒀다.

GS 그룹도 14개의 해외법인을 중동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GS는 오만 국가에만 8개 해외계열사를 두고 있는데, 모두 건설 관련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랍에미리트(4개)와 사우디아라비아(2개)에 세운 법인도 건설·부동산 업종에 해당했다.

이외에도 ▲CJ 그룹(8개) ▲한화 그룹(7개) ▲SK·KCC 그룹(각 5개) ▲중흥건

설(4개) ▲DL·HD 현대·OCI·고려에이치·엘엑스·오케이·금융·한국엔컴퍼니·호반건설 그룹(각 3개)이 뒤를 이었다.

이어 ▲두산·LS·세아·넥슨 그룹(각 2개) ▲HMM·KT&G·글로벌세아·네이버·넷마블·롯데·아모레퍼시픽·카카오·포스코(각 1개) 순으로 중동 국가에 해외 계열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유동성 관리와 상황에 맞는 리스크 대응 체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 中 테크기업, 로봇·모듈폰 등 하드웨어 혁신 경쟁

### MWC26

아니, 로봇 팔 카메라 탑재 로봇폰 샤오미-라이카, 테크노 등도 두각

애지봇, 지능형 로봇으로 노동 대체 차이나모바일, 초저지연 기술-AI 결합

인공지능(AI) 경쟁의 무게중심이 소프트웨어에서 ‘물리적 기술’로 이동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에서는 중국 테크 기업들이 카메라 구조를 바꾸거나 로봇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기기들을 대거 공개하며 하드웨어 혁신 경쟁의 전면이 나섰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정체 속에서 단순한 AI 기능 추가를 넘어 실제 기기의 구조와 물리적 능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차세대 기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난 2일(현지시간)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에 참가한 중국 테크 기업들이 대거 하드웨어와 로보틱스를 결합한 기술력을 선보였다. 중국 제조사들은 AI 스마트폰의 성장에 정체를 걱정하는 카메라 모듈의 물리적 구조를 변경하거나 디스플레이 혁신에 집중했다.

가장 파격적인 혁신을 선보인 곳은 아니다. 아너는 기기 후면에 3축 집벌 형태의 로봇 팔 카메라를 탑재한 로봇폰을 공개했다.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가 최대 180도 회전하며 피사체를 물리적으로 추적하고, AI 에이전트로서 사용자와 정서적 교감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 애플을 모방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혁신 레도에 올랐음을 증명하는 아너는 올해 하반기 중국 시장에 이

제품을 공식 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스마트폰의 이미징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시도 역시 두드러졌다. 샤오미는 라이카와 공동 개발한 ‘라이즈폰’과 ‘17 울트라’를 선보이며 실제 카메라의 조작감을 재현한 포토그래프 키트를 액세서리로 내놓았다.

테크노 역시 자성 기반으로 망원 렌즈나 액션 카메라 등 다양한 모듈을 탈부착할 수 있는 초박형 모듈형 폰을 전시하며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단순 소프트웨어 보정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렌즈 교환식 카메라와 같은 실제적인 촬영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전략적 변화로 해석된다.

전시장 전반을 관통한 또 다른 핵심 테마는 지능형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는 ‘메탈 칼라’ 시대의 도래였다.

휴머노이드 로봇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애지봇은 미래 공학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가 선보인 로봇 팔 카메라 탑재 휴대폰. /아너

환경을 가정한 시연에서 복잡한 동작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공항 안내나 물류 지원 로봇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아너 역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며 스마트폰 제조 역량을 로보틱스 생태계로 확장하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러한 로봇들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인간과 소통하고 실생활의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통신 네트워크와 로봇 기술의 결합도 구체화되었다.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



애지봇의 휴머노이드 ‘익스피디션 A2’의 모습. /애지봇

나모바일은 5G-A 네트워크의 초저지연 기술과 AI가 결합된 로봇 식당을 운영하며 요리부터 서빙, 결제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화웨이는 AI 로봇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강력한 대역폭과 초저지연 통신 환경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통신 기술의 패러다임이 인간 중심에서 피지컬 AI 중심의 연결로 전

환되고 있음을 선언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새 계좌 개설 없이 쓰던 계좌로

# 고민 끝

입출금 월별 리포트로

# 부담 끝



한눈에 보는 정기회비 현황으로

# 정신 끝



KB스타뱅킹 앱과 모바일 웹으로

# 가임 끝



끝내주는 모임 관리

## KB모임통장 서비스

정기회비 현황 조회  
모임 회비 납부 현황을 한눈에

콕콕 찌르기  
있고 있던 회비도 센스 있게 알림

모임 캘린더  
간편하게 등록하고 공유하는 모임 일정

월별 리포트  
그래프로 읽는 우리 모임 한 달 결산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 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KB모임통장 서비스를 모바일 웹으로 이용하시는 경우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340-1호(2026.01.26), 유효기간 2026.01.26.~2026.12.31.까지

KB국민은행

# 아세안과 손잡은 이 대통령... 중동 변수 속 실용외교 행보

**싱가포르-필리핀 3박4일 순방**  
국제 정세 불확실성 인식 공유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위기극복 뜻 모아

이재명 대통령이 3박4일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4일 귀국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들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필리핀 국빈방문 2일차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닐라 영웅 묘지 내 한국 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생존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만났다. 이어 오후에는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한 후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의 이번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은 방중, 방일에 이은 올해 세 번째 해외 순방이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아세안 핵심 국가인 싱가포르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한-필리핀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와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 다변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은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하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이 이에 대응해 주변 중동지역을 타격하는

등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만일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까지 투입시키면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정상과의 회담에서 최근 불안정해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을 공유

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위기를 이겨내자는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3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역내 정세와 함께 최근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의 조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2일 로렌스 워 싱가포르 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서도 "오늘날 초불확실성 시대의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필리핀은 올해, 싱가포르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이며 각각 수교 77년·51년을 맞은 전통적인 우방국이다. 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 및 중동 정세 불안정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인 두 나라와의 협력을 발전시킨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배우열 연세대 정치외교

학과 교수는 최근 정책브리핑 기고문에서 "2020년대 중반, 군사·경제·과학기술 안보가 서로 수렴하는 '안보 컨버전스' 현상이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면서 "동남아시아가 두 강대국(미·중)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3대 안보 컨버전스 축에서 한국의 국가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지역 파트너다. 이번 순방이 '신남방정책 2.0'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귀국 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중동 정세를 주시하며 국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란 전쟁 여파와 관련한 보고 및 대응책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수시로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마닐라)=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FTA 개정부터 방산·원전까지... 경제 지평 확장

**이 대통령 순방 성과**

싱가포르, 공급망 등 4개 분야 협력  
AI·SMR·디지털 등 5건 MOU 맺어  
필리핀, AI 등 신성장산업 협력 확대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약정 체결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세 번째 순방지로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선택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핵심 국가들과 만나 통상·첨단기술 분야로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이 대통령은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순방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한국을 떠나 3

박4일간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며 각국 정상들과 만났다. 이번 순방은 아세안 핵심 국가와의 경제 협력 확장이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원전·조선·방산·에너지 등 전략 산업을 전면에 세우고, 아세안 핵심국과의 협력을 꾀했다.

양국은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한 바 있다. 이에 싱가포르와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2006년 FTA를 체결했다. 양국은 20년 만에 공급망, 그린경제, 무역원활화, 항공 MRO(정비·수리·분해조립) 등 4개 분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FTA를 개정할 방침

이다.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항공기 MRO는 연간 약 20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라, 청와대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정비·부품·엔지니어링 생태계 확장과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한국과 싱가포르는 첨단기술과 에너지안보, AI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하고, AI·소형모듈원자로(SMR)·디지털·과학기술 분야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특히 AI의 경우 이 대통령이 한국-싱가포르가 주최한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협력 확대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국은 싱가포르

에 3억달러(4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고, 양국 공동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일 출범한 AI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간 주도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필리핀에서는 원전·방산·핵심광물 등의 협력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통상·인프라·방산 등 기존 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조선·원전·AI·핵심광물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 외연을 넓히기로 했다.

방산 분야 협력은 한국이 필리핀의 '군 현대화 사업'을 돕는 것이다. 필리핀이 수입하는 무기의 33% 가량은 한국산일 정도로 양국의 방산 협력은 규

모가 크다. 또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호위함·초계함 등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왔고, FA-50 전투기는 지난해 추가 계약도 체결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약정'을 체결하고, 한국 방산 기업이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합의했다. 약정 개정으로 무기체계 유지·보수와 후속 군수지원, 금융지원 관련 조항이 보강되면서 '수출' 중심이던 협력이 운용·지원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또 민간 분야에서 체결된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은 원전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양국은 니켈·코발트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한 필리핀과 핵심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필리핀(마닐라)=서예진 기자

## 李, 제조업·에너지·인프라 현대화 강조

한-필 비즈니스 포럼 참석·축사  
"미래형 산업 협력 모델 함께 구축"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양국 기업인들을 만나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양국 협력 확대 구상을 밝히며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양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축사에서 필리핀의 유구한 무역 전통을 언급하며 "과거 갈래온 선을 건조하던 필리핀의 조선 역량과 해양 전통은 오늘날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머지않아 수백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은 필리핀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시 한번 세계 시장으로 실어 나르며

제2의 마닐라 갈래온 무역의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방향으로 ▲보다 견고한 교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조업 협력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협력 ▲성장을 가속하는 인프라 현대화 협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이 핵심광물을 통해 힘을 합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은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첨단 산업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단순 제조를 넘어 인공지능을 접목한 제조 AI(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미래형 산업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협력에 대해선 "한국의 세계적 수준인 원전 기술과 청정 에너지 공급 역량이 결합된다면 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적 수준인 원전 기술과 청정 에너지 공급 역량이 결합된다면 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축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프라 분야에선 필리핀 '투손 경제 회랑(LEC)' 프로젝트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필리핀의 경제는 더욱 활력을 얻고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조선, 원전, 핵심광물,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총 7건의 양해각서(MOU)가 양국 산업장관 임석 하에 체결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수출입은행이 필리핀 전력회사 메탈코와 신규 원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사업 및 재무 모델 공동 개발과 인력 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 기술교육 및 개발청과 숙련 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필리핀 광산지구과학청과 밸류체인 강화 및 공동 탐사·개발을 위한 MOU를 맺었다. /필리핀(마닐라)=서예진 기자

##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9일까지 법안심사

늦어도 12일 본회의 상정·처리

여야는 4일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심사를 오는 9일까지 마치고, 늦어도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여부를 두고는 입장차를 이어갔다.

전준호 더불어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유상범 수석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사전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얘기를 나눴다"



회동하는 전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 /뉴시스

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지금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며 "국제 관계가 더 힘들어지면서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예정된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여야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CSM 쌓은 생보사, ‘본업·별도순익·법인세’가 실적 갈랐다

삼성 보험서비스 손익 80% 급증 투자손익 줄었지만 본업이 상쇄 한화 작년 연결순익 8363억 ‘방어’ 예상차 -3100억 등 별도순익 부담 미래에셋 세전순익 1987억 확대 법인세 비용 679억에 순익 축소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각사 사옥. /각사

지난해 생명보험사 실적의 승부는 CSM(보험계약 마진·미래이익 재고)을 얼마나 ‘보험이익’으로 바꿔냈는지에 달했다. 그 과정에서 예상차(경험치)와 가정변경, 세금 변수가 회사별 성적표를 갈랐다.

삼성생명은 보험서비스손익이 급증해 본업이 실적을 밀었고, 한화생명은 자회사 이익으로 연결을 지켰지만 별도는 예상차·손실부담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투자손익 회복에도 법인세·가정변경이 순익 전환을 막았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대 순익’보다 본업의 점프가 핵심이다. 삼성생명의 지배주주 연결 순익은 지난 2024년 2조1070억원에서 작년 2조

3028억원으로 9.3% 늘었다. 보험서비스 손익(보험 본업)은 5420억원에서 9750억원으로 79.8% 급증했다. CSM손익이 8480억원에서 1조1220억원으로 커지고, 예상차도 -2080억원에서 -1610억원으로 개선되면서 본업이 단단해졌다.

반면 투자손익은 같은 기간 2조2720억원에서 2조2022억원으로 11% 감소했다. 투자로 될 벌어도 순익이 커졌다는 건, 2025년 삼성의 성적표가 ‘운용’이 아니라 ‘보험 본업(언더라이팅·가정관리)’에서 갈렸다는 의미다. CSM도 12조

9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순증해 장래이익 기반까지 함께 늘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건강보험 중심의 수익성 강화 전략을 이어가며 장기적 이익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연결은 방어, 별도는 부담’이 뚜렷하다. 연결 순익은 지난 2024년 8660억원에서 작년 836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내용은 자회사 비중이 커진 구조다. 별도 순익 3133억원에 더해 한화손보·GA자회사·증권·자산운용·해외법인 이익이 합쳐져 연결을 떠받쳤다.

문제는 별도 실적의 ‘질’이다. 한화생명의 별도 세전 기준 보험손익은 3444억원인데, 구성에서 예상차가 -3100억원, 손실부담계약이 -1360억원으로 집계됐다. CSM 상각으로 이익을 만들고, 경험치(보험금·비용)가 예상보다 불리하게 나오면 당기 손익이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CSM도 신계약은 같은 기간 2조1230억원에서 2조660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수익성 배수는 건강 15.3배→15.9배, 종신 2.9배→4.0배로 개선됐다. 다만 보유 CSM은 9조1090억원에서 8조7140억원으로 감소했다. 2026년 관련 포인트가 판매 확대가 아니라 보유계약 경험치·손실부담 관리로 CSM을 방어하는 능력이 꼽힌다.

한화생명은 “신계약 CSM 유입 확대 및 경험조정 지속 축소 등을 통한 중장기 보유계약 CSM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세전 급증 vs 순익 감소’의 역설이 가장 선명했다. 세전이 이익은 지난 2024년 1231억원에서 작년

1987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1361억원에서 1308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핵심 변수는 법인세다. 2024년에는 과표구간 하락 등으로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130억원)이 발생해 순익이 세전보다 컸지만, 2025년에는 법인세 비용이 679억원으로 늘어 세전 개선분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 손익 구성도 대비된다. 보험손익은 1193억원에서 1120억원으로 줄었지만, 투자손익은 39억원에서 867억원으로 회복됐다.

CSM도 ‘흐름’과 ‘보유’가 엇갈렸다. 신계약 CSM은 5399억원으로 36.8%로 늘었지만, 보유 CSM은 2조780억원에서 2조580억원으로 1.0% 감소했다. 가정변경 효과(-4140억원)와 CSM 상각(-2060억원)이 신계약 유입분을 잠식한 결과다.

미래에셋생명은 “수익성·CSM창출이 가능한 상품 구조로 보장성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 “저축은행, 특성따라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이찬진 금감원장, 건전성 관리 주문 “충분한 대손충당금은 최후의 보루”

저축은행업권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10명 및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의 간담회에서 “책임 있는 건전경영과 내부통제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며 “저축은행 내부통제 제도와 여신심사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대형 금융회사의 방식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별

사업 구조와 조직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저축은행만의 실효성 있는 책임경영 모델을 완성해 달라”고 말했다.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충분한 대손충당금과 여유 자본은 어떠한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을 최후의 보루”라며 “건전성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이 서민과 지역 경제를 위한 상생·포용 금융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과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저축은행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금감원

도 영업 현장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며 규제 합리화 등 영업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실천도 당부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고 있는지, 금리인하 요구권이나 채무조정 요청권처럼 고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대출모집수수료 합리화를 통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저축은행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CEO들은 책임 기반 업무 수행과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l115@

##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특공 1800건 접수

생애최초 평균 경쟁률 8.18대 1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아파트의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이 2.18대 1을 나타냈다. 생애최초 공급 경쟁률은 8.18대 1이다. 분양가 부담 속에서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 청약이 이어졌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일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특별공급 824가구 모집에 총 1800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가 1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혼부부 488건이 뒤를 이었다. 다자녀 86건, 노부모부양 11건, 기관추천 37건으로 집계됐다.

평형별로는 전용 59㎡ 타입에 수요가 집중됐다. 특히 59㎡A와 59㎡C 타입에 신청이 몰리며 경쟁률을 끌어 올렸다. 59㎡C 타입은 생애최초 33가구 모집에 430건이 접수돼 1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초소형 일부 타입은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투지도. /DL이앤씨

미달이었고, 중대형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을 재개발해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가 함께 분양하는 대단지다. 총 4개 단지,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 동(아파트 24개 동, 주상복합 2개 동)으로 총 3022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3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 GS건설, 하자보증 끝나도 단지 안전지원

‘자이답게, 관심깊게’ 시행

GS건설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자이(Xi)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지원활동인 ‘자이답게, 관심깊게’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자이답게, 관심깊게’ 활동은 전기실, 기계실 펌프 정비 등 노후화된 공용부 및 차수막 등 단지내 입주인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공용부 시설물 위주로 점검을 실시해 화재, 침수 등 대규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점검 활동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한 후 GS건설과 AS전문업체 자이S&D의 기술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이 현장에 파견돼 단지 공용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리포트 형태로 입대이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입주인들의 요청이 있을 시 안전한 단지 운

영을 위해 아파트 운영·관리업체에 점검 결과에 따른 설명과 교육 등 자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자이답게 관심깊게 서비스는 자이(Xi)의 기존 사후관리체계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단지까지 확장한 프로그램”이라며 “GS건설은 주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입주초기부터 장기거주단계까지 자이(Xi)에 거주하면 안심할 수 있다는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이(Xi)는 입주 이후 단계별 사후관리 서비스를 마련해 공급한 이후에도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입주 초기 1~2년 단지 대상으로 입주민요청 이전에 건설사가 조정,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 공용부 전반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필요시 보수를 진



‘자이답게 관심깊게’ 캠페인을 통해 GS건설 직원이 기 공급한 아파트 공용부를 점검하고 있다. /GS건설

행하는 ‘먼저보고 새로고침’ 서비스를 진행해 능동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입주후 3~4년 이상이 지나 대부분의 마감재에 대해 보증기간이 종료된 단지를 대상으로 ‘자이 바로고침’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노후화된 소모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입주민들은 이를 통해 일상적인 주거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관리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신한금융 ‘PF 정상화’로 도심 주택공급

본 PF 1400억 금융주선 완료

신한금융그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 출자한 ‘신한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펀드’를 통해 서울 마포구 ‘공덕역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본 PF 1400억원 금융주선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공덕역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지난 22년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브릿지론 단계에서 중단된 이후 자금 경색이 장기화되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현상이다.

신한금융은 23년 9월 캄코와 함께 그룹 차원의 공동 출자를 통해 총 2350억원 규모의 ‘신한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했다. 위탁운용사인 신한자산운용이 프

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부터 사업 구조 재편 등 개발 전 과정을 총괄하고,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 등 주요 그룹사가 금융주선 및 출자에 참여했다.

특히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 중심의 개발 계획을 주상복합아파트 중심으로 전환하는 인허가 변경을 추진해 사업 구조를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본 PF 1400억원 금융주선을 완료하며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렸다.

신한금융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 사업장의 선별적 정상화를 통해 시장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자금이 실수요 중심의 주택공급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재투입되는 구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 LG, 국내 최초 사내대학원 개원... 구광모號 인재경영 결실

미국 K스퀘어에 캠퍼스 공간 조성 AI 분야 등 첨단산업 전문가 양성 구 대표, 입학생에 노트북·편지 전달



구광모 LG 대표.

구광모 LG 대표의 인재 경영이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구체적인 결실을 맺었다.

LG는 4일 서울 마곡 K스퀘어에서 'LG AI대학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LG AI대학원은 기업 부설 교육기관 중 국내 최초로 교육부 공식 인가를 받아 석·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사내 대학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날 개원식에서 구광모 대표는 1기 입학생들에게 LG의 초거대 AI 모델인 '엑사원'이 탑재된 최고 사양의 신형 LG 그램 노트북과 축하 편지를 전달하며 애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구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기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의 미소'를 설계하는 따뜻한 도구여야 한다"며 "AI 전문가들이 기술의 본질을 사람에 두고 인간의 가능성을 개척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LG AI대학원 1기 신입생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선발 전형(코딩 테스트, AI 모델링 평가, 심층 면접)을 거쳐 선정됐다. 석사 과정 11명과 박사 과정 6명 등 총 17명이 합격했으며, 계열사별로는 LG전자(8명), LG에너지솔루션(3명), LG이노텍·디스플레이·화학(각 2명) 소속이다.

LG AI대학원은 이론을 넘어 산업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수진은 LG AI연구원 소속 겸임교원 24명과 전임교원 1명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초거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부터 언어·비전·소재·바이오 등 전 주기에 걸친 실전 연구를



이홍락 LG AI대학원장(두번째 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LG AI대학원 1기 입학생들이 4일 개원식이 열린 LG AI대학원 마곡 캠퍼스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

수행한다.

교육 과정은 석사 1년, 박사 3년 이상으로 구성되며 학비는 전액 지원된다. 특히 박사 과정은 SCI(E)급 논문 게재가 졸업 필수 요건으로 지정되는 등 전문성을 엄격히 관리하며, 졸업 시에는 정식 '인공지능학' 학위를 받게 된다.

교육 환경도 최고 수준으로 갖췄다. 미국 K스퀘어 8층에 위치한 전용 캠퍼스는 강의와 연구, 세미나가 동시에 가능한 융합 학습 공간으로 꾸며졌다. 또

서울대, KAIST, DGIST, UNIST 등 주요 과학기술원과 협력해 특강 및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산학 기술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구 대표는 연구 과정에서 마주할 실패에 대해 "실패는 혁신으로 향하는 가장 정직한 과정"이라며 "실패에 굴하지 않고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만들어질 기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원 개원은 LG의 '사람 중심' 경영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 LG는 기술력의 핵심 동력을 자본이나 설비가 아닌 '인재'로 정의하고, 청소년부터 전문가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AI 교육 체계'를 완성했다.

LG는 ▲청소년 대상 'LG 디스커버리랩' ▲청년 대상 'LG 에이머스' ▲임직원 대상 'LG AI 아카데미'에 이어 이번 ▲석·박사 과정 'LG AI대학원'까지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생태계를 선도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홍락 LG AI대학원장은 "기업이 직접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LG AI대학원의 출범은 대한민국 AI 인재 육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학생들이 학문적 연구를 통한 기여를 넘어, 산업 현장의 실제 난제들을 직접 해결하며 미래의 혁신을 이끄는 AI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seoul.co.kr



## 배터리업계, 차량용 LFP 기술 주도권 '흔들'

韓, 차량용 제품 로드맵 불확실 中, 전기차 LFP 기술 고도화

국내 배터리 업계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국 BYD가 전기차용 차세대 LFP 기술 고도화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둘러싼 고민이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ESS용 LFP 생산 확대에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자동차용 LFP 배터리를 전면에 내세운 대규모 양산 계획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완성차용 LFP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에는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의 LFP 전략도 ESS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오창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

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에 들어가는 등 북미 지역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삼성SDI도 LFP 전략을 ESS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미 지역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ESS용 LFP 생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K은 역시 ESS용 LFP 배터리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북미 에너지 기업과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일부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ESS용 LFP 생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ESS 중심으로 LFP 전략을 전개하는 사이 중국 업체들은 전기차용 LFP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BYD는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공개를 앞두고 LFP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리튬인산철 기반

배터리 기술 기초를 유지하면서 중국인 증(CLTC)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1000km 수준을 목표로 성능 향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선보일 배터리 제품은 약 3000회 수준의 충전 사이클 성능이 거론되는 등 수명 특성 강화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LFP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보급형 전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현재 고니켈 NCM과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 수요가 형성된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 국면에서 가성비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LFP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 시장 대응 전략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한화오션, CPSP 최종 제안서 제출

잠수함 인도 일정, 투자 계획 등 담아

한화오션이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오는 2032년 첫 잠수함을 인도하고 2035년까지 총 4척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캐나다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일간지 캐나다인프레스는 3일(현지시간) 여성철 한화오션 사장이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PSP 최종 제안서를 캐나다 측에 제출

했다고 보도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는 지난 2일 캐나다 정부에 잠수함 인도 일정과 수주 연계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 사장은 이번 계약이 한·캐나다 간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철강, 인공지능(AI), 우주 등 다양한 분야 투자를 포함하고 올해부터 오는 2044년까지 연평균 약 2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 사장은 "한화의 제안은 단순한 플랫폼 제안이 아니라 명확한 인도 계획과 세대에 걸친 산업 파트너십을 결합한 것"이라며 "캐나다 국방 산업 전략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캐나다의 지상 방위 프로그램, 전자 분야, AI 기술, 북극 관련 역량 등 다른 사업 참여 가능성도 언급했다.

여 사장은 "역량 있는 캐나다 기업들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계약 결과와 관계없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

AW 2026

## 현대차·기아, '모베드 얼라이언스' 출범

고객 맞춤형 로봇틱스 솔루션 제공

현대차·기아가 고객 맞춤형 로봇틱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모베드를 중심으로 다자간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W2026)'에 참가해 '모베드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모베드의 국내 판매를 본격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단순 하드웨어 도입을 넘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을 원하는 최근 로봇 시장의 수요에 발맞춰 기획됐다. 얼라이언스의 핵심인 모베드는 혁신적인 바퀴 구동 시스템을 갖춘 현대차·기아의 신개념 소형 모바일 플랫폼이다.

모베드는 4개의 독립구동 DnL(Drive-and-Lift)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편심 구조를 갖춰, 지면 변



AW2026 전시장 내 현대차·기아 로봇틱스랩 부스에서 로봇틱스랩 관계자가 방송 촬영용 탐모돌 결합 콘셉트 모델 '모베드 브로드캐스팅'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화 대응 능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기아 로봇틱스랩은 모베드 플랫폼 개발 및 핵심 기술 기반을 제공하고 현대트랜시스, SL을 비롯한 10개 부품사는 센서·전장·배터리 등 주요 핵심 부품의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한다.

/양성운 기자

## 포스코DX, 자체 개발 AI 에이전트 선택

그룹 AX·DX 추진 사례 공유

포스코DX는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utomation World 2026)'에 참가해 그룹의 AX(인공지능 전환)·DX(디지털 전환) 추진 사례를 공유한다고 4일 밝혔다.

포스코DX는 이번 전시에서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를 선보이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한 '피지컬 A

I' 기술도 소개할 계획이다.

포스코DX 전시관은 'Your AX Journey with POSCO DX, the AI Native Company'를 주제로 운영된다. 전시관은 ▲회사의 비전과 안전 플랫폼을 소개하는 '포스코DX 개요' ▲AI 기반 업무 혁신을 담은 'AI 워크포스' ▲산업현장의 AX·DX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지능형 공장' 등 3개 테마존으로 구성된다.

/양성운 기자

# 소상공인 “인건비 폭탄, 제정논의 즉각 중단해야”

소공聯,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반대 TF’ 꾸려 5월까지 서명운동 통과 시 1인당 年 505만원 ↑ 추산 국회서 관련법 다수 발의 잇따라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보호 취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

소상공인업계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관련법이 제정될 경우 인건비가 크게 올라가거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폭탄을 맞을 것이라 우려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업계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까지 개정돼 결국 자신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소상공인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소공연

에 관한 기본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모두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이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두루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지원 정책 수립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 금지 ▲사

업자노무제공계약체결시노무내용 등 서면으로 작성·교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를 정해진 시기에 직접 통화로 전액 지급 ▲일하는 사람 공제회 설립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현 이재명 정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국정 과제(93·94)로 설정해 놨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까지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9월까지 기본법 시행을 위한 사업 등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소상공인 관련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TF’를 꾸리고 오는 5월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공연은 앞서 지난달 말 열린 정기총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소공연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싹틔움인 790만 소상공인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삼중고에 극심한

내수부진과 온라인 플랫폼의 공세로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기본법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이 기본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길을 열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법이 시행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비용은 1인당 월평균 42만원, 연간 505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27일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학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관련법 제정 추진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설명하는 등 향후 업종별·지역별 설명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코웨이

### “33cm로 더 슬림하게” 아이스 스탠드 ‘3.0’ 선보

일일 제빙량 13.6kg 얼음정수기

코웨이가 슬림한 크기에도 넉넉한 얼음을 제공하는 스탠드형 얼음정수기 ‘아이스 스탠드 3.0’ (사진)을 출시했다.

4일 코웨이에 따르면 아이스 스탠드 3.0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부족함 없이 얼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 크기는 줄이고 제빙 성능은 강화했다. 가로 33cm 크기로 기존 모델 대비 약 11% 부피를 줄여 좁은 장소에서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얼음 저장고는 3kg으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며, 일일 제빙량은 두 배로 늘어난 13.6kg을 구현해 하루에 최대 약 1246개의 얼음을 생성한다. 특히 16분마다 신선한 얼음을 생성하는 쾌속 제빙 기술력을 탑재해 전자 대비 약 23% 빠른 속도로 얼음을 공급해준다.

아이스 스탠드 3.0 정수기는 물을 받는 추출구 부분의 효율성과 편의를 높였다. 추출 공간은 27cm로 넓어져 긴 물병도 기울이지 않은 채로 안정감 있게 올려두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얼음과 물이 동시에 나오는 ‘얼음물’ 기능이 적용돼 각각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으며 3단계 맞춤 추출(약 500mL, 700mL, 1L)로 필요한 용량만큼을 원터치로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강석진, 거제 조선소 찾아 ‘해결형 지원’ 가동

(중진공 이사장)

## 삼성중공업 협력사와 간담회 인력난·네트워크론 확대 건의 취회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조선업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관련 중소기업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중진공은 4일 오후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삼성문화관에서 ‘K-조선’ 중소기업 도약을 위한 ‘찾아가서, 해결하는 중진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이사장을 비롯해 방호열 삼성중공업 상생협력총괄, 윤진석 사내협력사 협의회장 등 16명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울러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 91개사가 간담회를 참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고부가가치 선박 임가공에 따른 자금 지원 확대 ▲조선업 인력난 해소 ▲협력사 대상 네트워



4일 오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중진공 현장간담회에서 강석진 이사장(왼쪽 3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중진공

크론 확대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강 이사장은 오랜 기간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기술력을 지켜온 조선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기존의 ‘찾아가는 중진공’을 넘어 현장 애로 해결에 중점을 둔 ‘해결하는 중진공’ 방식으로 운영됐다. 정책자금과 인력지원 등 중진공의 주요사업 안내를 비롯해 제3차 부당개입 방지에 대한 설명은 기존처럼 진

행하고 별도로 마련한 상담부스를 통해 참관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1대1 현장 상담과 맞춤형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현장 해결형’ 지원방식을 강화했다.

강 이사장은 “대한민국 조선업이 다시 세계 정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산업 현장을 지켜온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며 “앞으로도 중진공은 K-조선의 도약 엔진이 힘차게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 애로 해결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과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중진공은 지역별 앵커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웅진프리드라이프

### 월낙원, 서울 첫 직영점 ‘서울제중 장례식장’ 개장

웅진프리드라이프가 서울에 첫 직영 장례식장을 열었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서울 구로구 새말로에 장례식장 브랜드 ‘월낙원’의 16번째 지점 ‘월낙원 서울제중 장례식장’을 개장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제중점은 연면적 965㎡(289평)으로 최대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10㎡(63평) 규모의 특 3호실을 포함해 총 6개의 빈소를 갖췄다. 용품 전시실, 휴게공간, 영결식장, 참관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돼 유가족들이 편안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프리미엄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지점은 구로역 인근에 위치해 높은 접근성을 자랑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빈소 및 사전상담 할인 혜택을 마련해 고품격 장례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월낙원은 웅진프리드라이프가 고객에게 차별화된 장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 선보인 국내 최초 전문 장례식장 브랜드다. ‘월낙원’이라는 명칭은 휴식을 의미하는 ‘월(休)’과 아름답고 영원한 안식처를 뜻하는 ‘낙원(Paradise)’의 의미를 담고 있다. /김승호 기자

## 기보, 지역 스타트업 성장 지원 나선다

중진공·경남은행과 업무협약 지역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BNK경남은행과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기보는 4일 경남 창원시 경남은행 본사에서 ‘스타트업 혁신 성장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기업지원 역할을 연계해 유망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의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경남은행과 중진공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경남은행은 자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HAIN-G’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중진공은 ‘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지원 인프라를 공유해 창업기업에 대한 One-Stop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모사업, 설명회, 투자상담회 등 공동사업을 기획·운영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동화일렉트로라이트, R&D 로드맵 공개

‘인터배터리 2026’ 참가 대응형 전해액 연구현황 등 공유

동화기업 계열사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 참여한다. 4일 동화기업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R&D 로드맵 ▲국내외 규제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선보인다.

R&D 로드맵에서는 핵심 역량인 다기능성 전해액 첨가제를 비롯해 ▲초고용량 배터리용 고성능 전해액 ▲LFP·LMR 배터리용 고가성비 전해액 ▲전

고체 및 리튬황을 포함한 차세대 소재 등 다양한 시장 대응형 전해액의 연구현황과 중장기 목표를 공유한다. 이와 더불어 R&D와 품질 분야에 도입한 AI 및 데이터 도구 활용 사례 등 디지털 혁신 현황을 알린다.

국내외 규제 대응 전략도 제시한다. ▲핵심 공급망 구축 현황 ▲글로벌 배터리 규제 대응책 ▲ESG 실사 대응 체계를 소개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발맞춘 비즈니스 방향을 강조할 계획이다.

부스 내 콘텐츠는 전해액의 제조 특성을 시각화해 디자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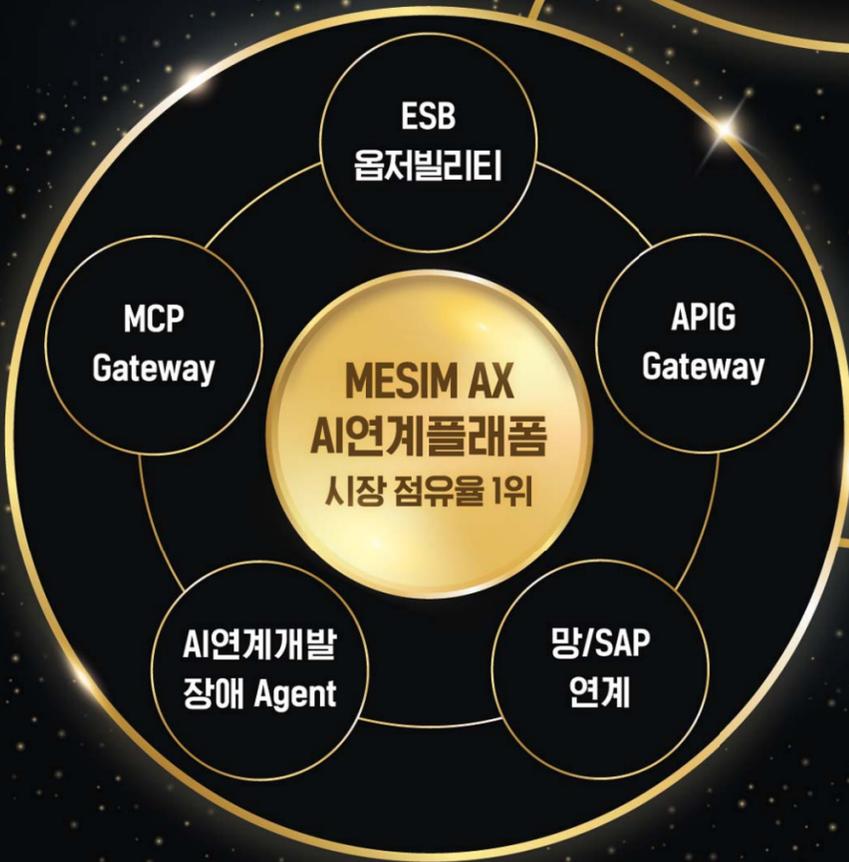
/김승호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통신사 'MWC26' 성과

# SKT, AIDC 설계구조 개선 컴퓨팅 자원 연결 효율화

컴퓨팅 자원연결 기술사 '파네시아'  
MWC26서 공동개발 업무협약  
CXL 기술 적용... 자원 선택적 활용  
서버단위 고정구조 탈피... 유연화



SK텔레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 26에서 파네시아와 'CXL 기반 차세대 AI DC 구조(아키텍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MWC26 SKT 미팅룸에서 기념 촬영 중인 정석근 SKT AI CIC장(왼쪽)과 정명수 파네시아 대표./SKT

SK텔레콤이 컴퓨팅 자원 연결 기술 기업 파네시아와 함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조 혁신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AI 모델 고도화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GPU 증설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팅 자원 연결 구조를 바꿔 성능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파네시아는 데이터 이동을 효율화하는 링크반도체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술은 여러 장치를 연결해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고 장치 간 데이터 전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활용된다.

SK텔레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에서 파네시아와 'CXL 기반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구조'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CXL 기반 기술을 활용해 장비 증설 없이도 AI 처리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을 낮추는 구조를 개발할 계획이다.

양사는 CXL 기술을 적용해 CPU·GPU·메모리를 서버 단위 고정 구조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연결·조합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



metro

# 기업, 개발지식·코딩 없이도 맞춤형 AI 에이전트 만든다

KT, MWC26서 '에이전트 빌더' 공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제작 가능  
기술개발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 완화  
향후 업무특성 반영 서비스 제공도



참관객들이 KT 에이전트 빌더와 산업별 AI 템플릿 전시를 관람하는 모습. /KT

KT가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에서 산업 현장의 AX(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제작 플랫폼 '에이전트 빌더'를 공개했다.

에이전트 빌더는 기업이 별도의 개발 지식이나 코딩 없이도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AI 에이전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기업들이 AI 에이전트 도입을 검토하면서도 기술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는 점을 고려해 기획됐다.

사용자는 미리 준비된 업무 템플릿과 대화 모델을 조합해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 사용 목적과 역할을 정의하고 데이터·시스템을 연결한 뒤 응답 방식 구성과 배포 과정을 거쳐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배포 이후에는 실시간 로그 분석과 성능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의록 자동화 에이전트'는 회의 정보와 녹취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자 분리 등 전처리를 수행한 뒤 핵심 안건과 결정 사항을 구조화해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후 담당 부서와 처리

기한을 반영해 공문 양식에 맞춘 문서 초안을 생성하고, 내부 문서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검토와 결재까지 이어지는 업무 흐름을 지원한다.

KT는 향후 산업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 AI 템플릿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제조·공공 분야에서 실제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산업별 특화 템플릿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이전트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도입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또한 KT는 에이전트 빌더 기능을 포함한 통합 AI 플랫폼 'K 인텔리전스 스튜디오'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AX 환경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에이전트와 RAG(검색증강생성) 등 주요 기능을 모듈 형태로 제공해 기업 환경에 맞게 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서현 기자

## 美 엔트로픽 퇴출에 실리콘밸리 연대... 챗GPT '별점테러'

구글·오픈 AI 직원 등 공개서한 서명  
소비자 시장선 '클로드' 이용 급증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AI 기업 엔트로픽의 퇴출을 결정한 가운데 실리콘밸리 기술기업 직원들이 공개서한을 통해 연대 움직임에 나섰다. 소비자 시장에서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이용이 급증하며 파장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4일 현지시간 실리콘밸리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 직원 약 830명과 오픈AI 직원 약 100명 등 900여 명은 '우리는 분명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미국 국방부가 요구하는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에 AI 사용을 허용하지 말 것을 자사 경영진에 요구했다.

서명에 참여한 직원들은 "국방부는 경쟁사가 굴복할 것을 두려워하도록 기업들을 분열시키려 한다"며 "이 전략은 서로의 의사를 모를 때만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업계의 공동 이해와 연대를 위해 공개서한을 작성했다"고 설

명했다.

실리콘밸리 창업자와 경영진, 투자자 등 180여 명도 별도의 공개서한을 통해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등 록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논란 이후 소비자 시장에서는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이용이 빠르게 늘 어났다. 클로드는 지난달 28일 미국 앱 스토어 무료 앱 순위에서 ChatGPT를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현재까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내 앱 다운로드 수

는 지난달 27일 하루 만에 37% 증가했고 다음 날에도 다시 51% 늘어났다.

반면 챗GPT는 오픈AI가 미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서 이용자 반발이 이어졌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챗GPT 앱 삭제율은 하루 만에 295% 급증했다.

웹 분석업체 스매트카운터도 2월 한 달 동안 챗GPT 점유율은 5.5%포인트 감소한 반면 클로드 점유율은 같은 기간 2.7%포인트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앱스토어에서는 이용자들의 이른바 '별점 테러' 현상도 나타났다. 클로드는 별점 5점 평가가 늘어난 반면 챗GPT에는 최저점인 별점 1점 후기가 급증했

다. 실제로 챗GPT 1점 후기는 지난달 28일 하루에만 775% 증가했고 다음 날 에도 전날 대비 100% 늘어났다. 같은 기간 5점 평가는 약 50% 감소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는 사회 관계망서비스 엑스를 통해 국방부 계약 논란에 대해 "기회주의적이고 영성하게 보였다"면서 "AI가 대규모 감시나 자율 살상 무기에 사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사대 진화에 나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렌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엔트로픽이 실수했다"며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네이버웍스, 행정기관 협업 플랫폼 선정

클로바노트 등 다양한 AI 기능 적용

네이버클라우드의 자사의 AI 기반 업무 협업툴 '네이버웍스'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협업 플랫폼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사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며 공무원들이 내부망에서도 보안 걱정 없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검증했다. 네이버웍스는 기능성,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 등 종합 평가를 거쳐 참여 부처의 협업 플랫폼으로 최종 채택됐다. 특히 보안이 핵심인 행정망 환경에서 CSA P 인증을 받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형태로 제공돼 공무원들이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업무에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네이버웍스에는 회의 내용을 자동 정리하는 '클로바노트', 부처별 업무 상황에 맞는 AI 어시스턴트를 제작할 수 있는 'AI 스튜디오' 등 다양한 AI 기능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행정망 내부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업무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메일, 메시지, 드라이

브 등 20년 이상 축적된 서비스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별도의 교육 없이도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별도의 전용 앱 설치 없이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실제 시범 서비스 이후 약 9500명의 공무원이 네이버웍스를 사용하며 업무 효율 개선을 체감했다. 행정안전부 내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97%가 사용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네이버클라우드 이번 도입을 계기로 중앙부처를 포함한 70만 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용 네이버웍스에 적용하는 초거대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연내 멀티모달 모델을 추가해 텍스트와 이미지를 아우르는 AI 행정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 메타빌드, 기존 업무에 AI 시스템 연결

공공기관 등에 'MESIM AX' 공급

메타빌드가 인공지능(AI) 시스템과 기존 업무 시스템을 연계해 전사적 AI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MESIM AX'를 공공기관 등에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MESIM AX'는 기존 연계 미들웨어 제품 'MESIM'과 AI 제품군을 통합한 플랫폼이다. ESB, API 게이트웨이, 망 연계 등 기존 연계 기술에 LLM, RAG, 코드 생성 기능을 결합해 기업 시스템과 AI를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연계 서비스 생성과 관리 기능을 자동화하고 대시보드와 관측 기능을 통해 운영 상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플랫폼에는 '데브옵스 에이전트' 기능

이 포함된다. 자연어로 입력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데이터 연계 항목과 인터페이스, 메시지 규격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매핑하는 방식이다. 메시지 전달과 변환, 어댑테이션 등 연계 프로세스를 자동 설정하고 테스트 시나리오 생성 기능도 제공해 개발 과정을 단순화한다.

또한 관측 기능을 통해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탐지 기능을 통해 시스템 전반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다.

AI 시스템과 기존 서비스 간 연결을 지원하는 'MCP 게이트웨이'도 함께 제공된다. /김서현 기자

# 미-이란戰 변수 속 반도체주 20% ↓... “AI 수요는 여전”

삼성·하닉 고점 대비 20% 안팎 급락 AI 메모리 수요 확대... 목표주가 상향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단기 조정

“5만 전자에 샀다가 10만 전자에 매도 해서 아쉬워서 다시 샀는데 이렇게 또 물릴 줄 몰랐다. 이번 전쟁이 얼마나 이어질지 몰라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지, 아니면 평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인지 알 길이 없다.” 회사원 강모(42세)씨는 연일 떨어지는 주가에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중동 군사충돌 여파로 국내 반도체 대형주가 급락하면서 개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는 지정학적 충격에 따른 단기 조정일 뿐 메모리 업황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하락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전주는 전날보다 11.74% 내린 17만 2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7일 증가(미



ChatGPT로 생성한 미국-이란 전쟁으로 급락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급락 그래프.

국-이란 전쟁 전)대비 20.46% 떨어졌고, 최고가 22만3000원 대비로는 22.78% 하락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호황기)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에 매수세가 몰렸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이를 압도했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 역시 곤두

박질 쳤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전날보다 9.58% 내린 84만900원까지 추락했다. 27일 증가 106만1000원에서 19.98% 빠졌으며, 최고가 111만2000원 대비 23.65% 하락했다.

증권가는 이번 하락을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기술적

조정으로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질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패닉에 빠지고 두려움보다 더 빠르게 회복한 사례가 많다”며 “정부가 100조원 규모 시장 안정 자금 투입을 예고한 만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60.8% 증가한 25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오히려 실적 전망을 상향하며 목표주가를 높이고 있다.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11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했다. 박유악 키움증권의 연구원은 “AI 메모리 수요 강세가 NAND 산업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

익은 170조원, 매출은 230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가 21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했다. 박 연구원은 “AI 용 메모리 수요가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HBM4 양산 확대와 eSSD 경쟁력 회복, 비메모리 흑자 전환 모멘텀이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지정학적 변수보다 AI 반도체 수요와 메모리 가격 사이클에 다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오히려 주가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도 내놓는 증권사도 나왔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무력 충돌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며 “메모리 업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가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 ETF 10조 넘긴 한화운용 “100조 목표”

1년 7개월 만에 순자산 약 3배 성장 24일 ‘PLUS K제조업’ ETF 상장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겠다.”

김종호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가 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PLUS ETF 순자산총액 10조원 돌파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 100조원 운용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ETF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편적인 간접투자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PLUS ETF는 기술과 금융을 결합해 더 정교하고 더 편리한 투자솔루션을 제공하며, 다가오는 고품질 시대에 투자자들의 든든한 연금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2024년 7월 ETF 브랜드를 PLUS로 개편하며 본격적으로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다. 브랜드 출범 당시 3조원대 중반 수준이던 순자산은 약 1년 7개월 만에 약 3배 가량 성장했다.

PLUS ETF는 고객의 수요에 맞춰 PLUS 고배당주(2.6조원), PLUS K방산(1.9조원), PLUS 200(1.6조원) 등 3(%) 단위 ETF를 잇따라 배출했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CMO는 “3년 뒤, PLUS ETF는 순자산 100조원, 업계 ‘TOP3’ ETF 운용사로 발돋움하겠다”며 “미국에 ‘K방산 ETF’를 안착시킨 성공 스토리를 발판 삼아,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 유럽, 아부다비,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로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전했다.

한화자산운용은 오는 24일 ‘PLUS

K제조업핵심기업액티브’ ETF 상장을 앞두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이 ETF의 운용 전략을 적용한 ‘K제조업 ETF’를 ETC사와 협업해 미국 시장에도 상장할 예정이다. 앞서 ‘PLUS K방산’의 운용 전략을 적용해 미국에 상장한 ‘美 K방산 ETF’와 유사한 형태다.

‘PLUS K제조업핵심기업액티브’ ETF는 미중 패권전쟁 속 미국의 제조업 파트너로서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한국의 제조업에 주목한 상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엘앤에프와 같은 2차전지 기업,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과 같은 조선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방산 기업, 그 외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봇, 에너지·광물, 바이오 기업들이 편입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 IPO 시장, 공모가 거품 빠지고 장기투자 ↑

금감원 ‘2025년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공모가 산정 방식

지난해 IPO(기업공개) 시장에서 공모가 거품이 완화되고 장기 투자 관행이 확대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년 IPO 시장, 무엇이 달라졌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상장 기업은 76개사로 전년(77개사)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연간 공모금액은 4조5000억원으로 전년(3조9000억원)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7개사가 2조2000억원을, 코스닥시장에서 69개사가 2조3000억원을 조달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연초 초대형 IPO였던 LG CNS 영향으로 공모금액이 전년 대비 4000억원 늘었다. 코스닥 시장은 상장건수와 공모금액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모 규모별로 보면 공모금액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중소형 IPO가

62건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동시에 1조원 이상 초대형 IPO 1건과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대형 IPO 6건이 성사되며 1000억원 이상 대형 IPO도 늘었다.

지난해 IPO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공모가 산정 방식이다. 모든 상장 기업의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밴드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밴드를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4년에는 기관투자자의 공격적인 가격 제시로 공모가가 밴드를 초과한 사례가 전체 IPO의 66%에 달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기관투자자의 장기 투자도 확대됐다. 기관 배정 물량 가운데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41%로 전년(18.1%)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일반 투자자의 IPO 참여도 크게 증가한 부분이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106대1로 IPO 호황기였던 2021년(1136대1)에 근접했다.

/허정윤 기자

## “사고 직후 렌터카 이용, 성급하면 손해”

### 금감원 Q&A

사고 과실 따라 피해자도 비용 발생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렌트비용이 전액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렌터카나 견인차를 이용했다가, 사고 처리 이후 피해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사고 직후 성급한 판단으로 또 다른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선, 사고 현장에서 즉시 렌터카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사설 견인업체나 렌트업체가 사고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특정 렌터카 이용을 중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담해야 했습니다.

사고 과실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C씨는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렌터카를 이용했지만, 이후 쌍방과실로 확정되면서 본인 과실 비율만큼의 렌트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됐습니다. 견인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력 이동이 가능했던 차량을 견인한 경우, 보험회사 견인비 보상을 거부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ChatGPT로 생성한 자동차 사고 후 렌트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에 고민하는 차주

사고 유형에 따라 아예 렌트비용이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차량손해담보의 경우 수리비만 보상하고 렌트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몰랐다가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차 단독사고나 구조물 충격 사고 역시 렌트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한 경우에도 렌트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허정윤 기자

## “토권증권 제도화 속도”... 민관 협의체 출범

금융위, 제도·인프라 설계 논의

금융당국이 내년 2월 토권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관 합동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제도 설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체계 등 디지털 자본시장 환경 구축이 핵심 논의 대상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토권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제도·인프라 세부 설계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유

관기관과 금융투자협회·핀테크산업협회 등 업계 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협의체는 기술·발행·유통·결제 등 4개 분야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상시 운영된다. 기술·인프라 분과는 분산원장 기술 요건과 기존 증권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발행 분과는 증권신고서 서식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논의한다. 유통 분과는 장외거래소 인가 체계와 거래 한도 설정을, 결제 분과는 스테이블코인 연계 등 미래 결제 시스템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 취업한파 뚫는 답은 결국 '기술'

## 폴리텍대, 'U턴 입학' 역대최대

대졸 U턴 25.2%, 입학생 4명 중 1명 자격·실습 갖춰 현장형 인재 직행 문과·공시 준비생 직무전환 성공 디지털·자동화·융접 기술로 재도약 AX 과정 신설, 전 세대 플랫폼 확대

지난달 '쉬었음' 청년 인구가 7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극심한 취업 한파 속에서도 남들과 다른 선택으로 '취업 대박'을 터뜨린 이들이 있어 주목된다. 4년제 대학 졸업 후 전문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재입학해 실무역량을 쌓거나 기술을 배워 직무 전환을 꿈꾸는, 이른바 'U턴 입학생'들이다.

4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폴리텍대학의 U턴 입학 비율은 2021년 16.8%에서 2025년 25.2%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입학생 4명 중 1명이 대졸자 출신 U턴 입학생으로, 단순 재입학이 아닌 취업 한파를 뚫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물류자동화 시스템과(하이테크과정)를 수료한 이선희(36) 씨는 사범대를 졸업하고 일본어 교사를 준비했지만, 기술 분야로 진로를 선회했다. 디지털트윈과 가상 시운전 기술을 익힌 그는 스마트팩토리 기업 경희정보테크에 입사했다. 이 씨는 "폴리텍에서 배운 기술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능성을 확장해 준 무기"라고 말했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바이오메디컬소재과(학위과정)에 입학한 한규태·정가는 씨 역시 각각 일어일문학과, 패션디



영남융합기술캠퍼스 한규태 씨가 재학 중 원료 성분 추출 실습을 하고 있다. /폴리텍대학

자인 전공자다. 강도 높은 실습을 통해 전공 장벽을 넘은 이들은 의료기기 기업 인코아와 메타바이오메드 연구직에 조기 취업했다. '문송(문과라 죄송)'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을 무색하게 한 사례다.

전북캠퍼스 산업설비자동화과(학위과정) 조현훈(30) 씨는 6년간 경찰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폴리텍에서 공조냉동·에너지 관리 등 산업기사 자격증 5개를 취득했고, 광양 포스코 정련기계정비 파트 공채에 합격했다. 그는 "폴리텍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패자부활전이 아니라,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사다리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포항캠퍼스 제철시스템과 남우정(33) 씨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제네시스 의장부)에, 전기제어과 이가은(23) 씨는 SK하이닉스에 각각 입사했다. 이들은 "기업이 원하는 건 화려한 스펙보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역량이었다"고 강조했다.

기술교육의 문은 국경과 연령을 가리

지 않았다.

성남캠퍼스 전기과에 재학한 호어민(23) 씨는 베트남 출신 다문화 청년으로, 폴리텍 다숨고를 거쳐 대학까지 진학했다. 언어 장벽을 극복한 그는 엔지니어링 기업 인티스에 취업하며 '코리안 드림'을 현실로 만들었다.

충주캠퍼스 특수용접과(중장년특화과정) 김광수(44) 씨는 북한이탈주민 출신이다. 기능장 자격 취득과 함께 전국 용접기능경기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금상)을 수상했다. 그는 "남한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기술로 갚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텍대학은 2년제 학위과정, 하이테크과정(대졸자 대상), 전문기술과정, 중장년특화과정, 이주배경구직자과정에 더해 2026년 AX(AI 전환) 과정을 신설한다. 청년층뿐 아니라 전 생애 전 계층을 아우르는 기술교육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 임금체불 근절·대지급금 회수 강화

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 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2000만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 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한다. 신용정보 제공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기존 민사절차에 따르면 변제금 회수 방식은 오는 5월부터 국제채납 처분 절차로 변경됨에 따라 공단은 선제적으로 '고액채권 집중회수 TF'를 신설·운영 중이며, 강력한 채권 확보에 나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의 악용을 막고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수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체불사업주 신용 제재 등 체불예방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임금체불 없는 일터 조성하고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농축산 오염원 관리·물 이용 체계 개선

농식품부, 기후부와 업무협약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부(에너지환경부)가 4일 '농축산 오염원 관리 및 물 이용 체계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농업정책을 환경정책과 연계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은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기후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관계부처 협력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질개선 ▲농경지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 확산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양 부처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정례 운영하는다. 실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 추



경남 창녕의 한 축산악취 저감시설에서 가축분뇨 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진 상황 점검과 제도 개선, 현장 애로 해소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적정시비와 최적관리기법 확산은 농가 비용과 노동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농업 혁신 정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166만호 돌파

작년 337GWh 절감, 탄소 15만톤 감축 누적 522억 경감, 세대당 연 4만9000원

한국전력공사가 시행 중인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 참여 세대가 지난해 166만호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한전은 2022년 도입한 에너지캐시백 제도 참여 세대가 2025년 기준 166만호를 넘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월 직전 2개월 동월 평균 대비 전력 사용량을 3% 이상 줄이면 절감액에 따라 1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을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에너지캐시백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또는 한전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참여 세대가 절감한 전력량은 총 337GWh로 집계됐다. 이는 총주전체 가정이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컸다. 약 15만톤의 탄소 배출을 줄였으며, 이는 소나무 약 23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동등한 효과라는 설명이다.

경제적 혜택도 가시적이다. 한전은



한전 깃발사진. /한국전력공사

지금까지 총 522억원의 전기요금을 차감해줬으며, 세대당 연평균 4만9000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했다. 전력 수요 감축을 통해 신규 전력망 건설과 전력구입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 전체 전력 운영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캐시백은 에너지 소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생활 속 자발적인 절약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 행동변화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며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절약 행동은 국가 전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기후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성과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것이다. 한전은 소비자가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월간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사용 시 알림을 받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스마트 e-리포트'를 통해 실시간 사용량과 캐시백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 노하우 공유 게시판'을 운영해 생활 밀착형 절약 문화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한전은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에너지캐시백 참여세대 200만 호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 캠페인을 전개하고, AI를 활용한 '월간 사용량 예측 서비스' 등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 혁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농업인 자녀 주거안정' 장학사업 지속

농협재단, 신규 410명 선발

농협재단이 올해도 '농업인 자녀 주거안정'을 위한 장학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농협재단 장학사업 일환으로 운영되는 농협장학관은 농업인 가정이 대상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자녀의 주거를 지원해 경농업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이 장학관에는 2025년까지 총 6964명의 대학생이 거쳐 갔으며 누적 지원금은 454억 원에 달한다. 올해 신규 입주생은 410명으로 연간 지원규모는 약 40억 원이다.

농협 관계자는 "부모 곁을 떠나 새로

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농협 장학관이 '서울 속 작은 농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시 강북구 소재 농협 장학관에서는 2026년 신규 입주 생활생을 대상으로 새학기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단체생활 안내와 농업·농촌 이해 제고 특강, 장학관 봉사단 소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입주생은 연간 100만 원의 비용으로 장학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농축산물로 제공되는 구내식당은 1식 1000원에 하루 3식을 운영하고 있다. 또 생활생 납부금은 전액 농협재단 기부금으로 처리돼 농촌 현장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대한홍삼(주)

건강창업의 모든 것!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헛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헛터그룹**  
Haetter Group

(주)헛터  
(주)헛터방송\_브레인TV  
(주)헛터라이프\_헛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 경북, 빅테크 손잡고 '제조 AX 인재' 키운다

부트캠프 공모 AI 분야 최종 선정  
2030년까지 5년간 88.7억 투입  
AI·클라우드·보안 PACE 교육 운영  
인턴십·현장실습 취업 연계 강화

경북도가 업스테이지·네이버클라우드·티오리 등 국내 테크 기업과 협력해 디지털 신기술 기반 제조산업 특화 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경북도는 대구대학교와 함께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사업 인공지능 분야에 최종 선정돼 2030년까지 5년간 총 88억 7,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비 71억 2,500만원, 도비 5억원, 기타 12억 5,000만원이다.

도는 이번 사업의 비전을 지역 제조산업의 AX 전환 혁신을 이끌 P·A·C·E Maker 인재 양성으로 설정했다. Physical·AI·Cloud·Security를 아우르는



경북도청 전경.

실전형 전문인력을 길러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도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체질을 스마트 제조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업스테이지·네이버클라우드·티오리는 각각 AI·Cloud·Security 분야에 참여해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강의에 나선다. 첨단 기술과 산업 현장 노하우를 대학 정규 교과와 연계하고,

계절학과와 정규학기에는 PACE 중심의 단기 몰입형 비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업 현장자가 참여해 실무와 연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는 포트폴리오 작성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론과 현장실습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단기 집중교육과 빅테크 인턴십을 통해 취업 연계까지 지원한다.

또 초·중·고교생과 도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이해와 활용,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기초 역량을 높이는 공유·개방형 교육을 단계별로 제공해 지역 사회 전반의 디지털 문해력 확산에도 나선다.

교육 과정에는 로봇·센서 등 디바이스와 AI를 연동한 공정 제어와 운영, 제조 지능화를 통한 품질 검사와 예지보전 등 공정 최적화, 클라우드 기반 제조 파이프라인과 디지털 트윈 공정 통합 모니터링, OT 환경 보안과 사이버 위협 탐지·대응 등이 포함된다.

박시균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대학이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과 함께 교과를 설계하는 것은 산·학 협력의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신기술을 익히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진주, 97개 학교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면 가동  
지역 농산물 사용률 15%p 향상

진주시가 올해 신학기부터 관내 97개 전체 학교에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한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통합 급식 체계가 본격 가동된 것이다.

센터는 2024년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2025년 42개 학교로 확대했으며 올해 3월부터 전면 운영에 들어갔다.

진주시는 기존 '식재료 총액 입찰 방식'이 품질 저하와 안전성 관리 한계, 지역 농산물 사용률 저조 등의 문제를 낳아왔다고 보고 2018년부터 센터 건립을 추진, 총 112억원을 투입해 2024년 연면적 2145㎡ 규모로 완공했다. 생산부터 물류·소비까지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다.

시범 운영 성과는 가시적이었다. 학교 급식의 지역 농산물 사용률이 2024년 32%에서 2025년 47%로 15%p 올랐다. 센터는 출하 농가를 지난해 85명에



식재료 제품 설명회.

/진주시

서 올해 111명으로 늘렸으며 현재 75% 수준인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업체와의 상생도 꾀하고 있다. 식재료 공급업체 모집 단계부터 관내 가공업체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영양교사 대상 제품 설명회를 열어 학교와 지역 업체 간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충남, 지하시설 정보 전산화 구축

아산 등 7개 시군 대상 사업 추진

충남도가 도로·상하수도 등 지하시설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해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시설 정보 전산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도는 국비와 도·시군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해 아산·당진·금산·부여·서천·예산·태안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도로 5km ▲상수도 164.01km ▲하수도 60.24km 등 총 229.25km에 달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도면을 단순 전산화한 시(市) 지역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측량·탐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군(郡) 지역

읍·면을 중심으로 관로의 심도와 위치, 속성정보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수집된 정보는 공공측량 성과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지하정보 활용시스템'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정보는 도로 굴착 인허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돼 지반 침하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분별한 굴착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하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지하정보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 부산, 中企 정책자금 5000억 지원 본격화

상의·기보·신보·하나은행과 협약

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에 본격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 3일 시청에서 부산상공회의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과 '부산·영남권 거점 기업 육성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부산·영남권 대표 거점 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기관의 협력 체계를 통해 총 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조성하며 기업

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도 한층 개선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금융 부담을 낮췄다.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이다. 상환 방식은 3년 만기를 기준으로,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중 기업이 자금 운용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기관별 역할도 명확히 나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대상 기업을 추천하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의 신용보증을 담당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남, 5개 시·군 도시재생안 원안 가결

창원·사천·산청·거창 첫 수립

경남도가 지난 3일 '2026년 제1회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창원·사천·산청·거창·함양 등 5개 시·군의 도시재생 관련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정성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4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된 창원·사천·산청·거창의 활성화 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됐다.

지역별 사업을 보면, 창원시 문화지구에는 261억원이 투입된다. '탐마루 & 숭길 문화마을'을 비전으로 무학산 비탈진 마을의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사천시 망산공원지구는 300억원 규모로 집수리와 골목 정비, 생활거점시설 조성을 추진한다.

산청군 옥산지구에는 372억원을 들여 체류형 거점 공간을 만들고, 도심 둘레길과 힐링 공원을 연계한 주민·청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거창군 전 통시장지구는 618억원을 투입해 구도심을 재생하며 청년 창업 지원시설과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함양군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함양읍 운림리 일대의 면적을 기존 9만 1271㎡에서 12만 1188㎡ 넓히고, 주택 공급과 유류공간 활용을 통한 생활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전략계획을 변경했다.

정성문 위원장은 "도시재생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핵심 정책"이라며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 지역 이모저모

창원시

###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창원시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인 지난 3일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 납세자는 한화엔진·세방전자·지엠비코리아 등 법인 3곳과 동부회센터 박희선 대표, 기아오뚜기 진해서비스 김환태 대표 등 개인 2명이다.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3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이력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사패와 함께 성실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 조사 2년간 유예, 징수유예 또는 납기한 연장 시 납세 담보 완화, 시 주관 행사·시찰 초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거제시

### 주한 7개국 대사 배우자단 방문

주대한민국 7개국 대사 배우자와 관계자 등 11명이 경남 거제도를 방문했다. 거제시는 주한 대사 부인회 소속 방문단이 거제의 자연경관과 산업 현장을 탐방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거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자체의 공식 초청이 아닌, 주한 대사 배우자들이 거제의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마련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문단은 호주 대사 부인 은영 로빈슨(Eunyoung Robinson) 여사를 비롯해 캐나다, 일본,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7개국 대사 배우자와 관계자 등이다. 번공용 거제시장은 3일 시장실을 찾은 방문단과 티타임을 겸한 환담을 가졌다. /거제(경남)=이도식 기자

완도군

###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 추진

완도군은 총 59억원을 투입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서는 그동안 전북, 미역, 다시마, 파래 등을 생산하는 478개 어가에서 친환경 수산물 국내 인증(유기·무항생제)을 받았으며, 전북, 미역, 쇠미역 등을 생산하는 80개 어가에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ASC, ASC-MSC)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4가지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금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지원 ▲유기 수산물 인증 컨설팅 ▲친환경 수산물 인증비 지원 등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영덕군

### 영덕전통시장, 단체 러브투어

영덕군이 화재로 소실됐다가 재건축을 마친 영덕전통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2월 개장식을 계기로 3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운영하며 상권 회복에 속도를 낸다. 러브투어는 타 지역 단체가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면 대형버스 임차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기존 30명이던 최소 인원을 25명 이상으로 조정했다. 단체당 최대 3대까지 지원하며 차량 1대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현장 편의도 강화했다. 시장 방문시 단체에는 전담 매니저가 동행하여, 안내 인력은 지역 특산물을 설명하고 이동 동선을 관리한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화장품 제조기업, 실적 신기록 행진... 글로벌 사업 '청신호'

한국콜마 지난해 매출 2.7조 돌파 코스맥스 국내법인 중심 고속성장 코스메카 韓·美 생산거점 확대 방침



미국 펜실베이니아 제2공장 전경.

/한국콜마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기업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다만 해외 파트는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후발 주자인 코스메카코리아는 북미 시장에서 대응력을 입증했다.

4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5년 연결기준 매출은 2조7224억원, 영업이익은 2396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24%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683억원으로 34.3% 늘었다.

사업부문별 실적 희비는 엇갈렸다. 국내 법인은 매출 1조1928억원, 영업이익 1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 22% 성장했다. 반면 미국 법인과 캐나다 법인은 매출 감소와 적자 지속세를 보였다. 미국 법인 매출은 전년 대비 5% 줄어 549억원이며 영업손실은 전년 60억원에서 134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존 최대 고객사의 주문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제2공장 가동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신규 고객사에 대한 제조공정 비용이 반영된 영향이다. 캐나다 법인 매출 또한 전년 대비 9% 감소해 359억원이다. 영업손실은 전년 87억원에서 54억원으로 적자 폭을 줄였다.

한국콜마는 향후 미국과 캐나다 생산 시설을 바탕으로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북미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제2공장을 운영하며 기초스킨케어 제품과 선크림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미국 제1공장은 색조 화장품 제조를 맡는 등 한국콜마는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해, 향후 '메이드 바이 콜마' 전략이 강화

될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맥스도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2025년 연결기준 매출은 2조3988억원, 영업이익은 1958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12% 성장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국내 법인은 고성장을 지속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2% 성장한 1조5264억원, 영업이익은 12% 오른 1546억원이다. 이에 비해 미국 법인 연간 매출은 1326억원으로 전년 대비 3% 하락했다. 미국에서는 색조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바디 제품, 선크림 등의 약진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코스맥스는 본사와 공동 영업을 추진하는 등 K뷰티 소비 흐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형 뷰티 시장 진출로도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 코스맥스는 올해 글로벌 생산 거점을 유럽까지 확장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이탈리아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케미노바' 지분 51%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케미노바의 생산 역량에 코스맥스의 K뷰티 노하우를 결합해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후발 주자 코스메카코리아는 국내외 사업 전반에서 성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5년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 6406억원, 영업이익 834억원, 당기순이익 575억원 등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22%, 38%, 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법인 매출은 전년 대비 34% 늘어난 4415억원, 미국 법인 매출 19% 커진 2168억원으로 모두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에도 국내 법인은 7% 증가해 477억원, 미국 법인은 99% 급증해 374억원을 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한국과 미국을 양대 생산 거점으로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 롯데백 '겻 레디 포 뷰티' 축제

롯데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의 시작에 맞춰 상반기 뷰티 축제로 '봄심(春心)' 사냥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샤넬, 디올, 입생로랑 등 글로벌 럭셔리 뷰티 약 26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뷰티 페어 '겻 레디 포 뷰티 (Get ready for beauty)'를 전점에서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행사를 위해 럭셔리 뷰티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뷰티 페어에는 '샤넬 뷰티'와 최근 뷰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프라다 뷰티'가 신규로 합류하며 탄탄한 브랜드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외에도 '디올', '에스티로더', '조말론 런던' 등 26개 브랜드가 참여해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프리미엄 향수까지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 CJ온스타일 리빙 행사 '홈스타일 위크'

CJ온스타일은 오는 15일까지 상반기 최대 리빙 행사 '홈스타일위크'를 개최한다.

이번 홈스타일위크는 가전·가구·침구·부품시공 등 리빙 전 카테고리에서 프리미엄 상품 큐레이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 기간 거실·침실 등 공간별 테마 상품과 함께 부품시공 상품까지 폭넓게 선보인다.

5만원 이상 구매 시 결제액의 10%를 적립금으로 제공하며, 모바일 라이브 추가 할인과 TV 구매 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 SSG닷컴 "배송 서비스 고도화... 장보기 대표 플랫폼 도약"

창립 12주년 맞아 대고객 선언 '쓱주간배송' 물량 대폭 확대 최택원 대표 "본원적 경쟁력 집중"

SSG닷컴은 창립 12주년을 맞아 배송 고도화, 신선식품 경쟁력, 멤버십 기반 가계 절약 기여를 골자로 한 대고객 선언을 4일 발표했다. 업의 본질에 집중해 '대한민국 대표 장보기 온라인몰'로 도약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원하는 일시에 받아볼 수 있는 '쓱배송', 도착보장 '스타배송', 주문 즉시 배송하는 '바로퀵'을 한층 고도화해 고객 생활 패턴에 최적화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SSG닷컴은 전국 100여 개 이마트 점포 물류 시설 PP센터(Picking&Packing)에서 처리하는 '쓱주간배송' 물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주간배송 수령 시간대도 지역에 따라 최대 5개까지 세분화한다.

SSG닷컴은 이마트 상품을 점포 반경 3km 이내에서 1시간 내외로 배송해주는 '바로퀵' 물류거점도 2분기 내 90곳으로 늘려 성장세가 가파른 퀵커머스 시장 영향력 확대를 노린다.

이에 더해 도착보장 서비스 '스타배송'을 전면 개편한다. 주간배송과 새벽 배송 미운영 지역에서도 CJ대한통운이 보유한 전국 단위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상온 상품은 물론 농축수산물 등 저온

상품까지 약속한 날 배송한다.

아울러 '온라인 이마트'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상품관리 측면에서는 이마트의 엄격한 신선식품 관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품질을 보장한다. 특히 집품 단계에서는 '고객 대신 장을 본다'는 원칙 아래 상품을 선별한다. 상품 선도에 불만족할 시 조건 없이 환불·교환해주는 '신선보장제도'를 운영해 신뢰도를 한층 높인다.

SSG닷컴은 이마트 시너지에 기반한 가격 경쟁력에, 멤버십 '쓱세븐클럽'의 7% 적립 혜택을 더해 실질적인 가계 물가 부담 경감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합리적인 구독료를 앞세운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쓱배송'과 '스타배송' 상품 구매 시 7% 고정 적립을 핵심으로 한 '쓱세븐클럽 기본형'을 월 2900원에 선보였다. 이달에는 CJ그룹과의 협업 범위를 콘텐츠 영역까지 확장, OTT 티빙(TVING) 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는 '쓱세븐클럽 티빙형'을 월 3900원에 선보인다. 멤버십 회원만을 위한 특가 상품도 상시 운영해 체감 혜택을 극대화한다.

최택원 SSG닷컴 대표이사는 "본원적 경쟁력에 집중해 장보기 대표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며 "차별화된 서비스로 온라인 장보기의 접근성을 한층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컬리, 연간 영업이익 흑자전환 성공

지난해 매출 2.4조, 영업이익 131억 집계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매출과 거래액(GMV)도 나란히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평가다.

컬리가 4일 진행한 '2025년 경영실적 어닝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2조367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연간 영업이익은 131억원으로, 4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나가며 연간 기준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전체 거래액은 13.5% 늘어난 3조

534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거래액 증가율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성장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컬리는 지난해 네 분기 연속 두 자릿수 거래액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4분기에는 16.2% 증가해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김종훈 컬리 CFO는 "이번 첫 연간 흑자는 매출 성장과 이익 확대가 연결되는 구조적 혁신을 입증한 결과"라며 "검증된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신사업 안착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 빙그레, 배당규모 유지... 1주당 3300원

주주환원 기초 부응... 배당기준일 19일

빙그레는 2025년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3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배당은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배당금 총액은 약 292억 원이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3월 19일이며, 배당금 지급은 4월 13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빙그레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조4896억 원, 영업이익 884억 원, 당기순이익 556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나, 내수 소비 침체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약 32.7%, 당기순이익은 46.2% 감소했다.

이 같은 경영 여건 속에서도 빙그레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과 주주환원 강화 기조에 부응하고, 고배당기업 특례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빙그레는 자율공시를 통해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회사는 ▲중속회사해태아이스크림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화 ▲브랜드 및 제품 품목별 수익성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 ▲안정적 투자 운영 ▲배당 원칙 명확화 등을 핵심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신원선 기자

### 신제품



## 롯데웰푸드 졸음번쩍검 제로제로

롯데웰푸드의 효능검 브랜드 '졸음번쩍검'이 카페인 섭취 부담을 없앤 신제품을 선보인다.

롯데웰푸드는 카페인과 설탕이 없는 '졸음번쩍검 제로제로(사진)'를 선보였다. 휘산작용으로 시원함을 선사하는 강력한 멘톨향과 저자 활동으로 깨어 있어 야 할 때 졸음을 쫓을 수 있지만, 카페인 성분은 없어 수면 리듬은 방해받지 않는다. 설탕도 들어있지 않아 부담이 적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이번 '졸음번쩍검 제로제로'는 보다 부담 없이 졸음을 퇴치하고 싶은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TPO에 알맞은 라인업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 “오늘도 편의점서 한끼”... 도시락·디저트 매출 나란히 증가

CU 간편식 매출 3년 연속 성장세  
가성비 갖추고 프리미엄화 병행  
디저트 할인 행사로 객단가 올라

“만원으로는 점심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렵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서울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줄줄이 오르며 이른바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되자 직장인과 학생들의 발길이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다. 점심은 물론 디저트까지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소비 패턴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서울 기준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1만2000원을 넘어섰고, 비빔밥 역시 1만2000원에 육박했다. 칼국수도 1만원에 달한다. 김밥, 짜장면 등 대표적인 서민 메뉴 가격도 크게 오르며 점심값 부담이 커졌다.

반면 편의점 도시락은 3000~5000원대, 김밥·토스트 등은 2000원 안팎에 구매할 수 있다. 식당 대비 절반 수준 가격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점심값에 민감한 직장



GS25에서 고객이 흑백요리사 간편식 시리즈를 구매하고 있다. /GS리테일

인과 학생, 1인 가구 수요가 몰리는 이유다.

실제 매출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GS25의 도시락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2023년 51.0%, 2024년 28.1%, 2025년 23.1%를 기록했다. 올해 1월에도 전월 대비 18.8% 증가했다. CU 역시 간편식 매출이 2023년 26.1%, 2024년 32.4%, 2025년 17.1% 증가하며 3년 연속 성장

세다. 세븐일레븐은 ‘한도초과’ 시리즈 누적 판매량이 450만개를 돌파하는 등 가성비 간편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 간편식은 더 이상 ‘저가 대체재’에 머물지 않는다. 업계는 가성비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품질 개선과 프리미엄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GS25는 ‘해자로운 돌아온 도시락’ 시리즈로 실속형 상품을 강화하는 한편,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와 협업한 간편식을 선보이며 화제성을 더했다. 일부 상품은 출시 한 달 만에 40만개, 협업 간편식은 2주 만에 80만개가 판매되며 흥행에 성공했다.

CU는 자체 브랜드(PB) ‘PBICK’을 확장한 ‘PBICK 더키친’을 통해 2단 구조 도시락과 토핑을 강화한 덮밥 등 프리미엄 상품을 출시하는 동시에, 3000원 내외의 ‘득템’ 시리즈로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 세븐일레븐은 총중량과 토핑을 늘린 ‘한도초과’ 라인업을 15종까지 확대하고, 샌드위치 가격을 14% 낮춰 2500원에 선보이며 가성비 전략을 강화했다.

점심에 그치지 않고 ‘식후 디저트’ 수요까지 편의점이 흡수하고 있다. 새 학기를 맞아 편의점 4사는 ‘이달의 도시락’ 행사와 함께 1+1, 대폭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객단가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이마트24는 ‘트렌드연구소’를 통해 말차·두바이·치즈 등을 앞세운 디저트를 이달에 출시하고 있다. 베이커리 인

플루언서와 협업한 빵·디저트 4종도 3월 한 달 30% 할인 판매한다.

CU는 ‘두바이 시리즈’ 누적 판매량 1000만개 돌파를 계기로 디저트 상품을 강화하고, 성수동에 디저트 특화 매장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도넛 브랜드 노티드와 협업한 신상품을 출시했으며, 단팻빵·소보로빵 등 ‘올드제과’ 제품군을 1500원에 판매하며 가성비 시장도 공략한다.

GS25의 디저트 매출은 최근 3년간 2023년 56.0%, 2024년 37.6%, 2025년 28.2% 증가했다. 이에 1500원 가격의 ‘해자로운 디저트’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였다. 세븐일레븐 역시 베이커리를 올해 집중 육성 카테고리 선정하고, IP 협업 베이커리 상품을 확대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이 단순한 외식 대체재를 넘어 ‘일상 식사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점심뿐 아니라 디저트까지 이어지는 소비 동선이 굳어지면서 편의점 간편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K-팝·뷰티의 만남... 케라시스, 브라질 상륙

‘케이팝 랜덤 플레이 댄스’ 개최  
헤어케어 제품 체험 공간 구성

애경산업은 오는 14일(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케라시스X케이팝 랜덤 플레이 댄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급 헤어케어 브랜드 케라시스가 주브라질한국문화원과 함께 기획해 K뷰티와 K팝에 관심이 많은 브라질 한류 팬들과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랜덤 댄스 경연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 중 상위 3명에게는 디지털 기기 등 특별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케라시스는 대한민국 대표

헤어케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꾸민다. 프로폴리스 성분을 더해 손상된 모발을 관리하는 ‘케라시스 프로폴리스 헤어본딩’ 제품군, 동백 오일 성분으로 모발 탄력을 개선하는 ‘케라시스 오리엔탈 프리미엄’ 제품군 등을 소개한다. 케라시스만의 제품력을 적극 알려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K컬처를 사랑하는 브라질 한류 팬들과 직접 교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글로벌 문화 교류와 함께 케라시스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케라시스XK팝’ 랜덤 플레이 댄스 인 상파울루 /애경산업

## 1만원대 프리미엄 와인 ‘V9’ 선택

나라셀라, 베라몬테와 공동 개발

국내 와인 유통업계 1호 상장사 나라셀라(회장 마승철)가 칠레 와인 브랜드 ‘베라몬테(Veramonte)’와 공동 개발한 신제품 ‘V9(사진)’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나라셀라의 와인 문화 대중화 철학과 ‘베라몬테’의 양조 기술을 바탕으로 기획된 협업 프로젝트로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데일리 라이프스타일 콘셉트를 지향한다. 1만원대 초반의 합리적인 가격대로 접근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베라몬테’는 칠레 카사블랑카 밸리를 대표하는 와인 브랜드로 지속가능한



포도 재배와 현대적인 양조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V9’는 카버네 소비뇽(Cabernet Sauvignon) 100%로 양조됐으며, 프렌치 오크에서 12개월 숙성을 거쳐 구조감과 부드러움의 균형을 완성했다. 짙은 루비 컬러와 함께 딸기, 블랙베리, 체리, 라즈베리 등 붉은 과일과 검은 과실의 아로마가 풍부하게 표현되며, 토스트와 바닐라, 모카, 향신료 계열의 풍미가 더해져 깊이 있는 스타일을 보여준다.

/신원선 기자

## 동아제약 입에서 바로 녹는 감기약

파우더형 ‘판피린타임 산제’ 출시

동아제약은 물 없이 입에서 바로 녹는 파우더형 감기약 ‘판피린타임 산제’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판피린타임 산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클로르페니라민, 리보플라빈, 티페피딘, DL-메틸에페드린 등을 함유한다. 콧물·목감기·발열·기침·근육통 등 주요 감기 증상을 완화해 준다. 또 비타민 B2를 처방해 감기증상으로부터 회복을 돕는다. 설탕, 색소, 카페인, 보존제는 첨가하지 않았다.

이번 신제품에는 오디오스 특허 기술을 적용해 소량의 침만으로도 입 안에서 빠르게 녹는 제형을 구현했다.

/이청하 기자

## 보령, 엑스포비오 공급... 혈액암 포플 확대

총 8종 혈액암 치료제 구축  
치료 전 주기 아우르는 것 목표

보령이 중국 항암제 개발 전문 제약사 안테진과 혈액암 신약 ‘엑스포비오’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보령은 엑스포비오에 대한 국내 관권·유통권·허가권 등 독점적 권리를 확보,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국내 공급을 시작했다.

엑스포비오는 안테진이 개발한 다발골수종·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다.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가진 계열 내 최약 약물로 세포 내 핵수송 단백질인 XPO1를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이때 종양 억제 단백질과 성장 조절 단백질이 핵 내에 축적 및 활성화되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엑스포비오는 치료가 거듭될수록 기존 약제에 불응하는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의 추가 치료 옵션으로 주

목받는다. 경구 제형으로 개발돼 복약 편의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엑스포비오는 ‘5차 이상 치료에서 텍사메타손 성분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 적용되어 있고 이달부터는 ‘2차 이상 치료에서 보르테오미드 및 텍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도 급여가 적용됐다.

보령은 엑스포비오 도입으로 혈액암 신약을 추가, 총 8종의 혈액암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보령은 혈액암 진단 초기부터 재발·불응 단계까지 치료 전 주기를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유일의 혈액암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임상 현장과 학술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장기적이고 세분화된 치료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보령 성백민 BD&마케팅본부장은 “혈액암 치료 전반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의미 있는 치료 옵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아모레퍼시픽, 자외선차단 숙련도 ‘적합’

프랑스 전문기관 주관 평가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프랑스 국제숙련도 시험 전문기관(BIPEA)이 주관한 ‘자외선 차단제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satisfactory) 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하며 국제 표준을 도입해 자외선 차단 평가 체계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

이번 인증은 자외선A(UVA) 차단성

능을 제외 방식으로 평가하는 역량인 국제 표준 ‘ISO 24443’에 대해서 이뤄졌다. 아모레퍼시픽은 블라인드 시료 3종에 대해 UVA 차단 지수를 높은 정확도로 도출해 데이터 신뢰도와 일관성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아모레퍼시픽은 자외선 차단제의 SPF 지수를 측정하는 최신 국제 표준 ‘ISO 23675’도 새롭게 구축했다. ISO 23675는 실험실 환경에서 자외선 차단 성능을 보다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청하 기자

LOTTERIA™

치킨버거의 근본을 세우다!

파이어핫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그릭랜치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두툼하다  
두툼해!  
침착맨'S PICK



깔 래 야 깔 수 없 는 무 적 의 치 킨 버 거

통다리 크리스피 치킨버거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LX인터내셔널, 필리핀 환경복구 공로 인정받아**

LX인터내셔널이 필리핀 라푸라푸 구리 광산의 환경복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필리핀 정부로부터 공식 표창을 받았다. LX인터내셔널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 현장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후안 미겔 쿠나 환경자원부장관이 구형서 LX인터내셔널 대표(오른쪽)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했다. /LX인터내셔널



**GC녹십자웰빙, 재난대응 공로 충북도지사 표창**

GC녹십자웰빙은 지난 3일 충북도청으로부터 '화재 확산 방지 및 소방활동 지원' 공로로 충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충청북도는 지난 1월 발생한 하이베리 공장 화재 발생 당시, GC녹십자웰빙이 보여준 신속한 초동 대응, 화재 확산 방지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번 표창을 수여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왼쪽)가 GC녹십자웰빙 박동환 생산본부장(오른쪽)에게 표창을 전달하고 있다. /GC녹십자웰빙



**중앙대 동문모임 '중흥회', 모교 발전기금 전달**

중앙대학교 동문모임 중흥회(회장 홍준의)는 지난 달 26일 R&D센터 11층 유니버시티클럽에서 10주년 기념식과 신년회를 열고 모교 발전을 위한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왼쪽부터)홍준의 회장, 박세현 총장, 양창훈 고문, 김중운 고문. /중앙대



**하나은행-고려대의료원, 유산 기부문화 확산**

하나은행은 지난 3일 고려대학교의료원과 유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진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왼쪽)이 윤을식 고려대학교의료원장(오른쪽)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보험연구원 부원장에 정성희 선임연구위원**



보험연구원은 정성희 선임연구위원을 부원장으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정 부원장은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학사, 통계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보험연구원에서 연구조정실장과 산업연구실장, 손해보험연구실장, 금융전략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주형기자 gh471@

# LG전자, 농어촌지역 가전제품 순회서비스 확대

**함평군청과 운영 업무협약 가전제품 사전점검 등 제공**

LG전자가 올해 농어촌지역 가전제품 순회서비스를 확대한다. 거리 등 이유로 고객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던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서비스매니저가 찾아가 가전제품 사전점검, 소모품 교체, 전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제품 사용법 교육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LG전자는 지난 3일 전남 함평군 함평읍 옥천마을회관 인근에 거점을 마련하고 주변 가구를 찾아 순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4일 밝혔다. 세탁기, 냉장고, TV 등 사용 중인 가전제품을 무상 점검하고 겨우내 사용하지 않던



LG전자가 전남 함평군 함평읍 옥천마을회관 인근에 거점을 마련하고 주변 가구를 찾아 순회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문서비스매니저가 TV 제품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LG전자

에어컨 필터를 세척하고 작동상태를 점검했다. 이 외에도 노후 멀티탭을 교체하거나 전원 주변에 소화패치를 부착하는 등 전기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점검도 실시했다.

LG전자는 최근 함평군청과 '농어촌지역 가전제품 순회서비스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

다. 그간 자체 진행해 오던 순회서비스를 지자체와 협업하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모델로 업그레이드해 보다 많은 고객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지자체가 순회서비스가 필요한 마을과 가구를 선정하면 LG전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다.

LG전자는 상반기 내 함평군 관내 33개 마을에서 서비스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함평군 외 다른 지자체들과도 협업을 검토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순회서비스 지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토요타, 동계패럴림픽 선수단 후원

**'스타트 유어 임파서블' 캠페인 후원금 1억 전달... 훈련 지원**

한국토요타자동차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이하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밀라노-코르티나동계패럴림픽에 참전하는 약 20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 제공을 위해 이루어진 이번 후원은 토요타의 글로벌 캠페인 '스타트 유어 임파서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스타트 유어 임파서블'은 스포츠맨십에서 영감을 받아 한계를 뛰어넘고 불가능에 도전하

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 역시 글로벌 캠페인의 취지에 맞게 국내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난 2017년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후원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4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을 공식 후원한 바 있다.

한편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장애인 스포츠 후원 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사랑받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05년부터 노숙인 보호 시설 '안나의 집'에 꾸준한 기부와 임직원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01년부터 국립암센터와 협력하여 암 연구 및 소아암 환자 치료를 위한 후원을 하는 등 20년 넘게 지속하는 등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로드나인' 개발사 엔엑스쓰리게임즈 임직원들이 연탄 지원 봉사활동을 마치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스마일게이트

## 스마일게이트, 취약계층 연탄나눔 봉사

**'엔엑스쓰리게임즈'와 2500장 전달**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로드나인' 개발사 엔엑스쓰리게임즈와 함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 'HEALing' 프로그램 '로드나인 온기 보급 퀘스트'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진행됐다. 해당 지역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곳으로 기초생활수급 노령층 거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겨울철 난방과 취사에 필요한 에너지 지

원 수요가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날 '로드나인' 김효재 프로듀서를 비롯한 엔엑스쓰리게임즈 임직원 41명은 수해 대상 가구 10곳을 직접 방문해 연탄 2500장을 전달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지원된 연탄은 총 1만 1111장 규모다.

'로드나인' 퍼블리싱을 맡은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는 이번 봉사활동을 위해 인게임 패키지 '신년 온기 전달상자' 판매 수익금을 기부금으로 조성했다. 해당 기부금은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에 전달돼 연탄 구매에 사용됐다. /최빛나 기자 vitna@

## 한미약품, 임성기 선대회장 철학 되새겨

**동판 조형물 제막식 거행**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2일 서울 송파 소재 한미약품 본사 뒷편에 최근 건립한 한미C&C스퀘어에서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회장의 동판 조형물 제막식을 거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형물은 임성기 선대회장의 업적, 신약개발 철학, 제약인으로서의 삶을 그려낸 것으로 설치 미술의 거장 박충흠 작가가 완성했다.

동판 작품이며 임성기 선대회장의 모습과 그의 친필 문구인 '제약강국을 위한 혁신경영'이 새겨졌다.

임성기약국 창업부터 한국 최초·최대 규모의 신약 기술수출, 인간존중 경영철학에 따른 어린이 의약품 개발, 한미사랑의 헌혈, 임직원 주식 증여 등 생전 업적을 한눈에 보여준다.

또 1973년 한미약품공업 설립, 첫 제품 'T.S 파우더' 출시,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갖춘



(왼쪽부터)한미그룹 임종훈 사장,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이 임성기 선대회장의 뜻을 기리는 동판 조형물 제막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약품그룹

팔탄 공장 완공, 동탄 R&D센터 설립, 한국 제약사상 최대 신약 기술수출 등 주요 업적들도 시대 순으로 다룬다.

특히 '신약개발은 내 생명과 같다'는 임성기 선대회장이 생전 거듭 강조해 온 신념을 되새겨볼 수 있다. 창립 이래 일관되게 지켜온 연구개발 중심 경영 철학의 출발점이자, 오늘 날까지 이어지는 한미그룹 정체성의 근간을 강조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NH농협은행, 군인연금 해외송금 제공

**국군재정관리단과 '맞손'**

NH농협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은행 본사에서 군재정업무 지원하기 위한 국군재정관리단과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NH농협은행은 해외에 거주하는 군인연금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군인 퇴직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인사**

- ◆경희의료원-강동경희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의료원장 오주형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병원장 이형래
-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트럭허심 판원 심판장 박선미

**부음**

- ▲임봉순씨 별세, 서재영·서호연씨 모친상, 서민지(금융팀 기자)씨 조모상 = 향년 92세, 3일, 메디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오전 5시, 장지 소화묘원, 02-2601-7500.





부천 시온고등학교 학교숲

/경기도

## 경기도, 올해 '도시숲 조성' 427억 투입

264개 사업지에 37.5ha 규모

경기도가 올해 427억 원(도비 113억 원 포함)을 투입해 생활권 주변 공유지 등 264개 사업지에 총 37만5000㎡(37.5ha)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사업 대상은 ▲기후대응 도시숲 5개소 ▲가로숲길 21개소 ▲쌈지공원 37개소 ▲학교숲 14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3개소 ▲도시숲길 정비 9개소 등이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도심 폭염과 열섬 현상 완화,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목표로 5곳에 조성된다. 연천군에서는 경원선 폐철도 구간을 활용해 10만5000㎡ 규모로 조성 중이며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가로숲길은 보행환경 개선과 기온 저

감을 위해 21개소에서 추진된다. 가평군 국도 75호선 2km 구간도 포함된다.

생활권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은 37개소다.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는 1500㎡ 규모로 조성하고, 여주시 세종대왕면 일원에는 지역 생태와 지형을 반영한 맞춤형 공원을 만든다.

학교숲은 수원시 천천고, 용인시 초당중, 고양시 상탄초 등 14개 학교에 조성된다.

이와 함께 화성시 병점근린공원, 이천시 진안근린공원, 의왕시 포일숲속공원 등은 리모델링과 추가 식재로 기능을 보완하고, 노후 도시숲길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서울교육청, 학교 성고충 심의체계 통합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전면 이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를 학교 단위에서 교육청 중심 체계로 개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 성고충 심의 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핵심은 기존 학교별로 운영되던 '학교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 상급 심의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번 체계 개편은 정근식 교육감 취임 당시 약속한 '안심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가 예방과 회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예방-사안 처리-회복 지원-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학교에서 운영되던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해 조사와 심의를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교 단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전문성·객관성·비밀 유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체계 개편은 학교 현장이 갈등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예방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희롱·성폭력 대응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사립학교 교사보호 공백 여전 교육청 "직접 조사권한 없어"

### '직장 내 괴롭힘' 조례 해석 분분 도움 요청에도 실질조치 어려워 교원단체 "사실관계 조사는 필요"

서울 사립초 교사가 학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립학교 교원 보호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몇 년 전 사립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이 감사에 나선 사례가 있었지만, 여전히 사립학교 교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사립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와 교육청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청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접 징계권이 없어 민원이 자체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조사 역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공립 교사라면 교육청 감사나 조사 대상이 되겠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권한이 없다'는 답을 듣는다"며 "같은 교사인데 보호받는 제도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 ◆ 공립은 교육청 조사… 사립은 재단이 사용자

공립학교 교사는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관리자 비위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례 등에 따라 교육청 감사와 조사 대상이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 적

용을 받는 학교법인 소속 근로자 신분으로 분류된다. 인사권과 징계권 역시 학교법인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학교나 법인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며, 관련 사건은 주로 고용노동부 절차로 처리된다.

사립학교 교사 보호 공백 문제는 이 전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 ◆ 관리자 상대 신고… 현장에선 "현실적 부담"

관리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 내부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구조여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신고 이후에도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이어가야 하는 점 때문에 관리자 상대 신고 자체가 큰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장은 인사와 보직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사립학교는 내부 인사 구조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진정서에서 담임 배정 제외와 보직 변경 등의 인사 조치가 괴롭힘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사안은 현재 고용노동부 판단이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 ◆ 교육청 "조례 적용 대상 아니다"… 사립 교사들은 반발

A씨는 학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청 '갑질 신고센터'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사립학교는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자체 종결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 사건에 대해 교육청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내부에서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구분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안으로,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라고 해서 사안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이외) 다른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업무 매뉴얼 정비와 조례 개정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에 직접 징계권이 없더라도 최소한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 요구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르면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위법·부당한 사안이 있을 경우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교육청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 자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청이 최소한 사실관계 조사를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사립학교 사건은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8 | 해질 / 18:29

3월 5일 (木)  
음력 : 1월 17일

수도권 날씨  
2 ~ 1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백령도 1/6  
연천 -4/12  
동두천 -2/14  
가평 -2/13  
파주 -3/12  
서울 2/14  
양평 -1/15  
인천 1/10  
수원 1/13  
용인 1/13  
평택 0/1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LG AI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 운영

### 교육비전 '최고 수준의 AI 인재 양성' 문제해결 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운영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이 설치한 사내대학원인 'LG AI 대학원'이 4일 개원식을 열고 인공지능(AI)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LG AI 대학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근거해 기업이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형태의 국내 첫 사내대학원이다. 사내대학원을 졸업하면 일반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는다.

LG AI 대학원은 인공지능학과 석사 과정 25명, 박사 과정 5명 정원으로 운영된다. 교육 비전은 '도메인 지식과 A



I 역량을 갖춘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으로 ▲산업 밀착형 AI 실무 인재 ▲글로벌 기술혁신을 선도할 AI 연구 리더 ▲AI 연구와 사업화를 연결하는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수진은 산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융합형 체제다. 전임교원은 AI 연구 전문성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출신 연구

자와 산업 현장 경험을 가진 신진 연구자로 구성된다. 겸임교원은 엘지(LG)경영개발원 AI 연구원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실습 중심 과목과 연구 과제(프로젝트) 지도를 담당한다.

교육과정은 석사 과정의 경우 문제해결 중심 실무형 교육을 목표로 1년 과정 형태의 3학기 과정으로 운영된다. 박사 과정은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 리더 양성을 목표로 3년 이상 과업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박사 과정 졸업 요건에는 SCI(E)급 논문 1편 이상 게재 또는 세계 정상급 학술대회 발표가 포함돼 산업 현장과 학계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요구한다.

/이현진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 이란, 미 카타르 레이더 폭파 사진…FT "AI가 조작한 것"  
▲ "보복공격 피해 집중" UAE, 이란 미사일거지에 반격 검토" /사진 뉴시스

▲ "법적 문제 없다"던 다카이치, 선물 논란에 태도 조정…"삼가고 싶다"  
▲ 日, 총리 직속 정보기구 권한 대폭 강화…각료 9명 참여 회의 신설

▲ '기지 사용 거부' 스페인, 美 무역중단 위협에 "국제법 준수해야"  
▲ 中, IAEA서 일본 비판…"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인재"



화장품 제조기업  
실적 신기록  
글로벌 사업 탄력  
나



Life

편의점서 한끼  
도시락·디저트  
매출 증가  
L2



# 쩍쩍박사 레시피 현실로 치즈풍미 더한 매운맛에 일본 입맛까지 ‘씩쓸이’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농심 ‘신라면 툼바’

농심이 선보인 ‘신라면 툼바’는 기업이 기획한 신제품이 아니라 소비자가 먼저 만든 레시피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신라면에 우유와 치즈, 새우, 베이컨 등을 더해 만드는 ‘신라면 투움바’ 레시피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매콤한 국물라면에 크림의 고소함을 더한 이색 조합에 소비자들 사이 열광한 것이다.

### 신라면에 우유·치즈 더한 레시피 소비자 아이디어로 정식 제품화

### 풍미 강화한 꾸덕한 소스 구현해 출시 두 달 만에 1100만개 판매

빅데이터 분석 기업 RSN에 따르면 ‘신라면 투움바’ 관련 콘텐츠는 2022~2024년 연평균 13% 증가하며 꾸준한 관심을 이어갔다. 농심 자체 소비자 조사에서도 1020세대의 약 60%가 해당 레시피를 인지하거나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젊은 소비층의 실질적 소비 경험으로 안착했다는 의미다.

농심은 이같은 소비자 주도 트렌드를 제품화 기회로 판단했다. 이에 농심은 2024년 9월 ‘신라면 툼바’를 출시, 두달

만에 1100만개 판매를 돌파하며 인기몰이를 했다.

재료별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리 난도를 낮추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신라면의 매운맛을 기반으로 생크림과 체다·파마산 치즈를 더해 꾸덕한 소스 질감을 살렸고, 버섯·마늘·청경채 등 건더기를 보강해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용기면의 경우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 소스 농도와 풍미를 강화한 점이 차별화 포인트로 꼽힌다.

이 제품은 국내를 넘어 일본 시장에서 ‘이변’을 만들었다. 농심은 지난해 4월 일본 CVS 1위 유통업체 ‘세븐일레븐’을 통해 신라면 툼바 용기면을 현지에서 본격 출시했고, 출시 2주 만에 초도물량 100만 개가 모두 판매되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9월부터는 봉지면으로 라인업을 확대해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등 일본 편의점 TOP 3를 중심으로 전국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출시 후 브랜드 누적 판매량은 약 700만 개에 달한다.

매운 라면에 크림소스를 더한 ‘파스타 스타일’ 조합은 인스턴트 라면 강국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콘셉트로 받아들여졌다.

흥행 성과는 지표로도 확인됐다. 신라면 툼바는 한국 라면 최초로 닛케이 트렌디가 선정한 ‘2025년 히트상품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다. 닛케이 계열 월간 지인 닛케이 트렌디는 일본 내 출시 상



지난해 4월, 일본 편의점에 출시 2주 만에 100만개 초도물량 완판  
韓라면 최초 닛케이 트렌디 선정

레스토랑과 협업, 특별메뉴 선보여  
라면, 색다른 미식 메뉴로 확장

품과 서비스를 판매 실적, 혁신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매체로, 현지 소비 트렌드를 가늠하는 지표로 통한다.

매체는 신라면 툼바에 대해 “매콤한 크림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식사 만족감이 크고, 일본에서는 드문 전자레인지 조리 용기면이라는 점이 젊은 층에게 재미를 줬다”고 소개했다.

신라면 툼바는 모디슈머 레시피의 상품화라는 실험에서 출발해 일본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아우르는 메가 히트 상품

으로 확장됐다. 기업이 트렌드를 만드는 시대에서 소비자가 만든 레시피를 기업이 정식 제품으로 끌어올린 역할상 전라 이 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농심은 올해 라면을 활용한 미식 프로젝트 ‘농심면가’를 본격 확대한다.

농심면가는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과 협업해 전국 인기 다이닝에서 신라면, 짜파게티 등 농심 라면을 활용한 특별 메뉴를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소비자들 사이 일상 속에서 라면을 색다른 미식 메뉴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는 전국 18개 유명 다이닝과 손잡고 연중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참여 매장에서는 ‘차돌 대파 신라면’, ‘한우 바질 짜파게티’ 등 각 레스토랑의 개성을 살린 이색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다. 참여 다이닝 정보는 캐치테이블 앱에서 ‘농심면가’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농심면가를 통해 분기별로 총 4곳의 대표 다이닝과 협업했다. ‘신라면 툼바 랍스터 마팔디네’를 선보인 페리지, ‘남영돈 배갈’을 공개한 남영돈 등이 참여했다. 올해는 대표 다이닝 협업을 6곳으로 확대해 프로젝트 규모를 키울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



일본 편의점에 출시된 신라면 툼바. 한국 라면 최초로 일본 닛케이 트렌디가 선정한 ‘2025년 히트상품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다.



/농심



▲쇼트트랙 김길리, 샤넬 모델로 변신... ‘재미있는 경험’ /사진 뉴시스  
▲홍명보호 코트디부아르전, 꺾 4부팀 경기장서 28일 개최

▲남자 하키, 아일랜드전 완패로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U-20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에 김정수 전 제주 감독대행 선임

▲미국-이란 전쟁 불똥... ‘슈퍼스타’ 호날두 스페인행 루머 확산  
▲‘첫 K리그1 승격’ 부천, 이영민 감독과 재계약...2028년까지 동행

# SAMSUNG

## Galaxy S26 Ultra Galaxy AI ✨

사전 판매 | 26.02.27 ~ 26.03.05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만나보세요!**



[samsung.com](https://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S펜은 갤럭시 S26 울트라에만 내장되어 있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